금주의 법구-〈장아함경〉
만족할 줄 알고
게으르지 말며
궁핍할 때를 준비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2호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신행혁신 · 전법강화 불자 감소 '정면돌파'

조계종 포교원, 17일 신년계획안 공개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발표 결과 불교신자 300만 명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조계종이 불교 포교 · 신행의 일대 변화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포교와 포교연구, 신도종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재편과 함께 신년계획을 공개했다.

신행 혁신과 불자상 정립 박차

포교원이 주안점으로 둔 올해 핵심 종책은 신행혁신운동과 불자상 정립이다. 포교원은 가장 먼저 3월 중 신행혁신을 의제로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대중공사를 연다. 신행혁신운동 거점사찰도 현재 조계사와 봉은사 등 이미 지정된 전국 주요사찰 127곳에 추가로 사찰 30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주 포교원 전법팀장은 "지난해 127곳에 대한 지정을 완료했지만 인구대비 지정되지 않은 사찰이 있어 선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신행혁신운동 거점사찰 확대와 함께 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신행혁신운동 확산을 위한 매뉴얼과 '붓다로 살자' 소책자를 비롯해 신행혁신 레터 발간 등을 진행해 일선 사찰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행아카데미'의 시범 운영과 수행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포교원은 이를 위해 선원수좌회 측과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 중이다. 또 불자 신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포교원은 불교사회연구소와 함께 3월부터 9월까지 신행현황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도 교육 및 조직 활성화

신도 기본교육 강화를 위해 포교원은 현재 137곳인 신도 기본교육기관도 200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매년 기본교육기관 40곳을 인가할 방침이다. 지역별 · 인구별 거점 교육기관도 1곳 이상을 설립한다.

김상기 포교차장은 "교구별 수말사 1~2곳씩을 섭외 중에 있다. 신도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도종책위원 성행 스님은 "기본교육 이수 후 불교대학의 심화교육까지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기초불교대학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도조직도 확대돼 정부부처마다 공무원 불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불자회는 170여개로 총 1만여 공무원이 소속된 상태다. 포교원은 공불련과 함께 정부기관 불자회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미래세대 전법 본격 추진

불교 미래를 위해 저연령층에 대한 포교도 추진된다. 이는 현재 불교의 세대간 인구 분포가 매우 기형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월 신행혁신 대중공사 개최
거점 사찰 150곳으로 확대해
수좌회와 수행프로그램 개발
모든 정부부처에 불자회 설립

가장 먼저 현재 522곳인 파라미타 학교분회에 50곳이 신설 추진된다. 현재 포교원은 120여개 어린이청소년 전법도량을 활용해 인근 학교에 파라미타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에 나선 상황이다. 기존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 17곳도 확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포교 계층 개발을 위한 전법단도 강화된다. 우선 2월 어르신전법단, 새터민전법단이 출범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포교단체서 활동하는 지도법사 스님도 30명 이상 증원해 포교단체 지도법사를 총 670명 선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불교혁신에 한국불교의 명운이 달려있다. 포교원은 신행혁신을 통해 새로운 포교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회의에서는 포교위원장 심산 스님, 신도종책위원장 지현 스님, 포교연구위원장 혜거 스님 등 각 위원회 위원이 위촉됐으며 총 27억 411만원의 예산도 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까만 손이 전한 따뜻한 연탄나눔

태고종 사부대중의 얼굴이 정말 해맑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연탄 속에는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 행복해지는 불법이 녹아 있나보다. 설 연휴를 앞둔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태고종 스님들의 연탄나눔 후 자원봉사자들과 스님들이 연탄가루가 검게 묻은 장갑을 펼쳐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자비행에 나선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조계종 협의대상 아냐"

문화재청 황당한 답변… 조계종 "핵심 벗어난 물타기"비판

조계종과 사찰과의 협의와 통보 없이 진행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에 대해 문화재청이 "조계종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본지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17일 보내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음을 밝혔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에서 조계종과 해당 사찰에 대한 사전 고지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등산객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만 민원이 특정 사찰에 집중됨에 따라 기초 실태조사 및 연구 · 검토를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면서 "조계종과 직접 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은 공개입찰 당시 자세하게 '과업지시서'에 용역 대상 내용이 포함됐다. 제안서 내용을 외부위원이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는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 단체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연구용역 참여자도 도시공학, 미디어영상, 농학 등 해당 연구 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애초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한 답변도 있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종법 개선'에 대한 과업지시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공개 및 직접 관람에 따른 관람료 징수 취지"라면서 "조계종 내부 종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징수 근거로 제시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의 상충 관계 및 타당성 등을 비교 · 분석해 문화재보호법 개선 필요성 여부를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식 답변"이라고 성토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종단의 문제 제기 처음에는 몇몇 사찰 종무실장과 논의했다고 답하더니 불교계 언론들 취재가 이어지자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불통 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13일까지 요구한 답변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직접 관람에 따른 것'이라는 문화재청의 인식 역시 '점' 단위 문화재 관리에서 '면'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제2의 창간 정신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신임 사장 취임



박종수 前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사진〉이 현대불교신문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1월 2일 자로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은 "현대불교신문사의 사시는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의 창간 정신을 앞세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홍포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불자들에게 필요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욕구를 반영한 기사 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급변하는 언론 지형에 맞춰 SNS, 동영상 등 뉴미디어로의 매체 영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신임 사장은 충북원예농협 전무를 지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으로 불교 신행 발전에 일임을 담당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령

명) 관리국 국장 서 춘 건

광고국 국장 김 학 표
국장 이 동 격

편집국 국장 김 주 일
부장 신 성 민
차장 노 덕 현

2017년 1월 16일 부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다음호는 연휴관계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혜사 지분, 수덕사와 절반씩”

대전고법, 화해권고결정… 소유권 정혜사 인정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싼 선학원과 수덕사 간 소송에서 “정혜사 지분을 절반씩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정혜사 42만㎡ 부동산은 1918년 7월 정혜사에 사정된 토지이므로 정혜사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월 9일자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를 정혜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지분을 정혜사와 수덕사 각 1/2로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정서 송달 2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정혜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원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치고, 이후 2개월 이내에 수덕사와 합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합유물 처분·변경에는 다른 합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합유재산의 분할 및 처분과 합유지분의 처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혜사가 수행정진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덕사는 2018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2천만원을 사찰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케 했다.

판결이유로 법원은 일반 대중에 불법(佛法)을 전파하라는 만공선사의 뜻을 내세웠다. 또한 정혜사와 수덕사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도들의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 갈등이 있지만 선학원에 소속된 정혜사와 조계종에 소속된 수덕사는 만공선사가 중창한 뜻에 따라 승려와 관계자들이 수행정진하고, 대중에 불법을 전파하는 공동의 도량이자 공간으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을 합유로 하는 것은 만공선사의 뜻을 받들고 정혜사와 수덕사의 화합을 기리기 위한 증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 측은 2015년 수덕사를 상대로 1981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덕사 명의로 변경된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지만 이번 2심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년하례법회서 스님과 재가자들이 서로 배례하고 있다.

“信心不二 지혜로 깨어있는 한 해를”

종단협, 조계사서 신년하례법회

불교계를 대표하는 각 종단 지도자와 정관계 인사들이 모여 희망 가득한 정유년이 되길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 부처님전에 3배를 올리며 존중과 화합의 힘으로 한 해를 열어갈 것을 서원했다.

이날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들은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다”면서 “시대의 엄중함 속에서 언제나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공심과 원력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신심불이(信心不二)의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종단협 소속 각 종단 총무원장과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재원 문체부 종무실장, 각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승가교육, 전법 역량 강화에 주안점”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18일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 사진)이 올해를 ‘승가 전법·포교 역량 향상의 해’로 삼고, 승가교육 내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한 학인 설법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육 지표를 ‘전법·포교 역량을 향상시키는 승가교육’으로 삼았다”면서 “부처님께서 승가에 부촉하신 전법포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승가교육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법 역량 강화’를 교육 목표로 삼은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교육 사업들이 이뤄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7월경 열리는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다. 학인 설법대회는 염불, 외국어 스피치, 토론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학인 대상 경연대회로 학인 스님들의 대중설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열린다.

또한 승가대학 학인 스님의 전법 포교 역량 향상과 사찰 경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설법과 토론〉 〈종무행정〉을 신설했다.

승가고시와 연수교육에서도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2급 승가고시에 이어 3급 승가고시에도 ‘설법’ 능력 평가를 도입하며, 모든 승가고시 논술에 ‘전법·포교’ 내용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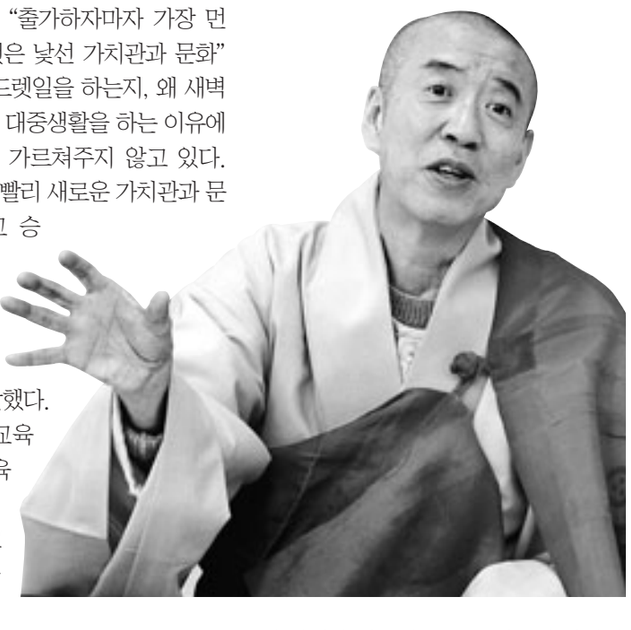
연수 교육에서는 ‘우리 사찰 신도 2배 늘리기’, ‘2박 3일에 끝내는 동영상 제작’ 등 실질적으로 포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는 강좌들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전법사(가칭)’ 제도도 추진된다. ‘전법사’는 승가대학을 졸업한 학인들 중 우수 인원을 선별해 부여하는 일종의 교육원 인증 자격증이다. 교육원은 오는 2018년 기본교육기관 졸업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응 스님은 “1970년대에는 동국대 학인 법사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법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학인 스님들은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도 주지 부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법회에서 설법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지난 7년간 교육 불사를 통해 학인 스님들은 현대화된 불교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학인 토론대회를 보며 대중에게 법을 전하는데 무리가 없음을 알았다. 법을 전하며 미흡함을 대중과 토론하고,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 목표를 잡았다”고 밝혔다.

출가 진흥에 대한 사업은 행사보다는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입산 행자들의 하산율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사찰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구 본사출가지도법사 제도를 정착하고 상담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응 스님은 “출가하자마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낯선 가치관과 문화”라면서 “왜 허드렛일을 하는지, 왜 새벽에 일어나는지, 대중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입산 행자들이 빨리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에 적응하고 승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전문교육기관인 사찰승가대학원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학점제 시행과 더불어 교수 스님들의 강의계획서 작성과 배포를 의무화한다. 불교와 제학문간의 융합, 사회적 의제에 대한 불교적 담론 형성을 위한 ‘전문연구자 연찬회’도 개최한다.

7월경 첫 학인 설법대회 개최
‘전법사(가칭)’ 자격 신설 추진
승가대 졸업 선별인원에 부여

교구본사 출가지도법사制 정착
입산 행자 조기 정착위해 지원
“구세대비, 바른 전법서 비롯돼
전법·포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2013년부터 시작된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편찬사업도 올해 마무리된다. 교육원은 〈백교회통〉 〈근대한국불교개혁론〉 등에 대한 영역편찬을 오는 8월 완료하고 9월 봉정식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응 스님은 “구세대비는 바른 법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교육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스님들의 구세대비 원력 실현에 귀착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진각 100년 향한 新불교운동 원년 삼겠다”

진각의범 정비·100년 비전 선포식 등 계획
1월 18일 회성 통리원장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올해는 진각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진각 100년을 향한 진각 새불교 운동 실천 원년의 해로 삼고, 지혜와 자주 및 화합으로 희망과 온기 넘치는 종단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사진)는 1월 18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대회의실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30대 집행부 주요 사업과 함께 청사진을 이렇게 밝혔다. 회성 정사는 “진각종은 올해 70주년을 맞아 의례와 의식, 교리, 문화 등을 체계화시켜 진각 역사를 바로 세울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진각의범’ 정비와 함께 불사 문화와 의례 개선 및 표준화, 의례 의식의 시각·음악적 요소 정비, 종단 유무형 문화재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각 역사자료실 신설 △진각종단사(전자도서) 지속적 발간 △진각 70년사 도서 및 영상콘텐츠화 △‘진각 70년 교화를 말한다’(가칭)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진각 100년을 앞두고 비전도 마련한다. 6월 창교절을 맞아 ‘진각 100년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이며, 진각 100년 준비를 위한 인재 결집인 ‘JGO 포럼’ 설립, 진각 100년 교화 자료집 등도 준비 중이다.

회성 정사는 “교구 중심의 교화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교구별 특성화 사업 및 포교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제도를 개편해 스승들의 교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사업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교구와 심인당 교화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포교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특화된 심인당 운영, 신규 심인당 개설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진각문화사업단(가칭) 신설 △진각국제체험관 운영 △국제포교사 교육 및 배치 △국제구호사업 등 국제교화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성 정사는 최근 불자수가 300만 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다른 종교에 비해 신행 생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감소 이유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적 포교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항상 진각종 스승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2세 포교에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 진각종의 미래가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회성 정사는 “그동안 우리 종단은 전통불교 의식서 과감히 탈피해 도심에 심인당을 개설하고 교화에 힘써왔다”며 “진각새불교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표가 되도록 종무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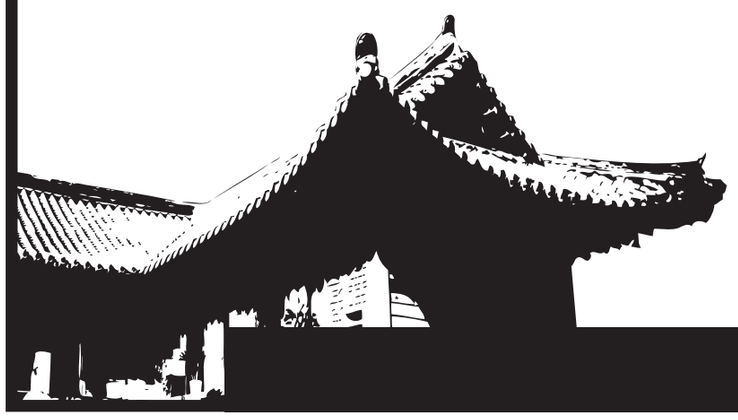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0.27기념재단 설립근거 마련될까

강창일 의원 등, 10.27법난법 일부개정안 발의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근거를 담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의원은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정각회 소속 김영주 · 신경민 · 오영훈 · 이개호 · 이원욱 · 추미애(이상 더불어민주당) · 강길부 · 이진복(이상 바른정당) · 서영교(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추모 · 기념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교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운영 및 각종 추모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10.27법난이 발생한지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인가… 추모사업 수행
"종교 특혜 아닌 과거사 치유"
기재부 반대 입장, 협의 관건
재단 출연에 대한 논의도 필요

10.27법난은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 제주4.3사건 ·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유사한 과거사 법률과 달리 기념재단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교계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5년 국회 심의과정서 기념재단 설립 내용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제외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논의기간이 짧았고, 기획재정부가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해 심의서 제외됐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기념재단 설립이 단순한 종교기념관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차원이 아닌 과거사에 대한 치유 · 화해 차원서 이뤄져야함을 기재부에 적극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10.27법난 관련 법령을 연구한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기념재단 설립을 불교계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법난 자체를 국가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같다"면서도 "재단 설립 이후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법난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념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개정안 통과 외에도 재단법인 출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4 · 3사건특별법에는 '제주4 · 3 관련 재단에의 출연'이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난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는 특별법 이전 민간차원 재단이 설립된 터라 법안 통과 후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조계종 측은 개정안 협의과정서 출연 주체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유사 법률에도 정부와 지자체 출연이 명시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차후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금정사 명훈 스님(왼쪽), 박경석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빈곤문제 단체 후원 이어간다

무차대회 인연… 1사찰 1단체 후원결연

빈곤문제 해소에 일조하고자 2014년 시민초청 무차대회서 인연을 맺은 사찰과 빈곤문제 사회단체가 2년간 결연을 이어가게 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는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1사찰 1단체 후원결연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2014년 개최한 무차대회서 사찰과 빈곤문제 단체의 결연을 확대 · 연장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2차(2016~2018) 결연은 22개 사찰 및 스님이 총 14개 단체를 후원한다. 1차(2014~2016)에 비해 2배가량 확대됐다.

이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참석단체를 대표해 "광화문 지하차도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외친 지 1608일째다. 그동안 많은 스님들이 다녀가셨고, 송파세모녀 사건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여기셨다"면서 "불교계 지원이 세상을 함께 바꾸는 힘이 된다. 임대료조차 못 내는 단체들에겐 더 없이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총무원에 들어오면서 '붓다로 살자'는 문구를 봤다. 소에 올라타 소를 찾는 어리석은 중생에 대해 많은 걸 느꼈다"며 "사회를 바꾸는 일은 힘들지만 희망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년간 사찰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신 스님들에게 액수를 떠나 감사드린다"고 후원사찰을 격려한 뒤 "차별 없이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길 바란다. 종단도 평등사회 구현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연에는 김포 금정사를 비롯한 18개 사찰과 개별 스님 4명이 동참해 홈리스행동 · 빈곤사회연대 등 14개 단체를 후원한다. **윤호섭 기자**

〈환경과 불교〉 발간

환경위, 환경교재 발간 8년 만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환경교육용 교재 〈환경과 불교〉를 발간했다.〈사진〉 이는 불교계 환경활동가 및 스님들을 위한 교육 교재로, 20여년 활동성과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간됐다.

환경위 측은 "지난 2008년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환경교재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작한지 8년이 지나 내용 보완 및 대상에 맞는 교육용 교재가 필요하단 요청이 제기됐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교재는 △제1장 현대 환경문제와 불교(홍석환 부산대 교수) △불교의 생태적 사유와 전통(서재영 불광연구원 박사) △전통사찰의 공익적 특성과 가치(이영경 동국대 교수) △사찰림의 특성과 관리(최송현 부산대 교수) △사찰환경문제와 대책(이병인 부산대 교수) △환경재해와 에너지 전환(김익중 동국대 교수)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박아름 기자**

2만 불자, 광화문서 〈금강경〉 독송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4월 6일 '금강경 독송 정진대회' 개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일환
전국 300개 사찰 동참 예정
이기흥 "불자 자부심 고취"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서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금강경〉을 독송하는 불자들의 정진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19일 전법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신년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의 신년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중앙신도회의 대표 나눔문화 캠페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국태민안 기원 전국불자 금강경 독송 정진대회'로 확대 개최된다.

이기흥 신도회장은 "지난해 행복바라미 캠페인 일환으로 순례했던 300개 사찰을 중심으로 독송 정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 인원은 2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독송 정진대회는 불자들이 〈금강경〉 독송을 통해 세계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이미 조계종 전 교구본사를 비롯해 주요사찰 동참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측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와 전국 25개 교구 본말사 스님, 중앙신도회 임원진과 포교사, 불자 정치인과 주요 정관계 인사 등이 운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신도회는 정진대회를 통해 최근의 탈종교화 및 불자감소 현실에서 신행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 회장은 "가장 먼저 불자들의 자부심과 신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의 사회 참여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며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소 500개소를 운영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4월 7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부산,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2017행복바라미 지역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1인 1불자 만들기', '신도등록 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평창 월정사, 속초 신흥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체육인불자연합회 등과 협력해 11월 1일 평창올림픽 성공기원법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2,900억 규모 건물 헐거나 기부채납 가능성도

강남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 13일 황일근 前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추후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2,90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서초역 주변에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공간 10,077㎡을 사용토록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를 냈다. 이에 원고 측은 '불법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2011년 12월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1심부터 다시 판단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이 사랑의교회의 사적 이익보단 대한민국 사회의 적법성 회복이 절실하단 것을 고려해 내려진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주민소송의 가치를 살리고, 정치와 종교 결탁의 유혹을 예방한 판결"이라 평가했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주민소송대책위)'도 즉각 환영을 표했다. 주민소송대책위는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것은 정의와 청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사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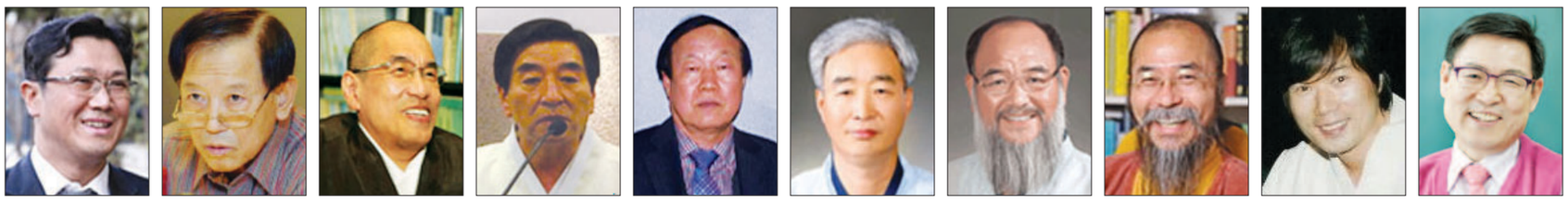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2월 23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9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 장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일 주 문



안양교도소 위문행사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스님은 1월 28일 설날 안양교도소 2500여 전 재소자들과 함께 떡국공양을 진행한다.



'나웅왕사…' 출판기념회

현담 영덕불교사암연합회장 스님(서남사 주지)은 1월 16일 경내 대웅전에서 〈나웅왕사 불적답사길〉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군종교구 정유년 첫 수계법회 봉행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1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2017년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사로는 군종교구 부교구장 선일 스님이 나서 장병 3900여 명에게 계를 내렸다.

선일 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군복무 기간 동안 불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군생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동행, 9개 단체에 1억원 지원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서 '2017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 수여식을 진행하고 선정 단체에 총 1억원의 상금을 지원했다.

지원된 곳은 △국제개발 및 구호분야 (사)지구촌공생회 · 빈두케사르 국립고등학교(각 2,000만원) △아동 · 청소년 분야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1,000만원) · 부송종합사회복지관(950만원) · 문수청소년회(1,000만원) 등이다. **이승희 기자**

〈바로 잡습니다〉 1131호 6면의 기사 중 조계종 종무원조합 성만재 위원장을 **성만제 위원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불교계 소통 강화하는 정당으로"



Interview

더불어민주당불자회장 오영훈 국회의원

조직적 당내 불교활동 계획

2~3월 부경지역 불자회 구성

차별금지법 제정 긍정적 입장

"불교계와의 소통에 있어 여당보다 야당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불자들의 요구에 맞춰 분기 또는 상 · 하반기마다 사찰순례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각 도별 당 불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불자회(이하 더민주불자회)가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며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을)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더민주불자회는 기존 국회정각회 더민주소속 의원 모임인 연등회를 잇는 신행단체로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당직자 등 당내 모든 불자들이 참여한다. 의원 중심의 불자회를 벗어나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불교활동을 펼치고자 새롭게 꾸려졌다.

더민주불자회장을 맡은 오영훈 국회의원은 1월 17일 기자간담회서 "대선이 조기에 실시되기도 하고 대한민국 전통문화 계승 · 발전을 위해서도 불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면서 "불교계가 바라볼 때 더민주의 기반이 탄탄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당내 불자들의 역량을 한 데 모을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가시적인 목표는 2~3월 중 불자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 · 경남 도당불자회를 결성해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내 불자들의 민의를 확인하고, 회장이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오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당내 불자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당내 불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랍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발표한 '박 대통령 퇴진 호소문'과 관련,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종교의 사회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직접 민주주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더민주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종교 각 분야의 사회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계종이 밝힌 차별금지법 입법 지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 등 각 분야 차별은 해소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기념재단 설립근거를 담은 '10 · 27법난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우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적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 측 의견을 명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종단협 등 여러 의견이 공식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보완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원 스님 마지막 길, 시민 함께해 따뜻했다

1월 14일 '박근혜 퇴진' 소신공양
정원 스님 시민사회장 봉행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광화문광장서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의 영결식이 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살을 에는 한파가 찾아왔지만 정원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스님 및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곳곳에선 정원 스님을 부르짖으며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 스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서 정원 스님 시민사회장을 봉행했다. 이 자리엔 정원 스님 유가족과 범불교시국회의 스님들, 시민 등 500여명이 운집했다.



1월 14일 정원 스님 운구행렬이 광화문광장을 지나고 있다.

약 1시간 진행된 영결식은 묵념, 임을위한행진곡 제창,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및 범불교시국회의 추도사, 정원 스님 행장 소개, 추모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범불교시국회의 대표로 추도사 낭독에 나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철 스님은 "(정원)스님께서 모셨던 부처님은 억압과 고통 받는 뭇 민중들이었으며, 스님께서 살았던 절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길거리였다. 스님의 수행은 적폐를 청산하는 처절함이었다"며 "정원 스님 소신공양, 그 보살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과 아집, 어리석음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장례위원회는 이날 오후 12시 정원 스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서 불교식으로 발인했다. 이어 서울 조계사로 이동, 노제를 올린 뒤 청운동 및 청와대 일대서 운구 행렬을 했다. 200여 명의 시민과 만장이 행렬을 따르며 정원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자광 스님, 발전기금 기탁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동국대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과 신도회는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불사기금 5,000만원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1,000만원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승희 기자

운문사 승가대학, 제53회 졸업식



국내 최대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 운문사(회주 명성)는 1월 10일 제5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과 승가대학 제53회 졸업식을 경내 대웅보전서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회주 명성 스님과 주지 진광 스님, 학장 일진 스님, 학감 운산 스님, 동화사 총무국장 각정 스님, 이승율 청도군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운문사는 한문불전승가대학원생 성묵 스님 외 6명과 운문사승가대학생 정현 스님 외 25명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성묵 스님과 승가대학 졸업생 동우 스님에게 조계종 교육원장상을, 법민 스님에게 제9교구장상을,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동우 스님에게 회주 스님상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신년 하례법회



(사)대원불교조계종은 1월 10일 양산 불광사(총무원)서 정유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엔 종정 청봉 스님, 승정원장 덕오 스님, 원로의장 홍섭 스님, 총무원장 혜오 스님 등이 참석했다.

청봉 스님은 "정유년 한해에도 화합과 상생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 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도심 속 '이뭣고' … "몸뚱이 집착 끊어낸다"

서울 참불선원 5일 집중명상수행 현장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앉아 사랑하는 에고(ego)의 버튼을 하나씩 끈다. 오직 모를 뿐, 한 생각 내리고 또 한 생각 내린다. 온몸이 묵직해지며 빠져 들어간다. 몰라라 내린 생각만큼 은하계가 펼쳐지듯 수천수만의 반짝이는 별이 뜬다. 밀가루를 뿌린 듯 반짝이는 저 별을 보고 있는 나의 아는 놈, 이뭣고?

-선덕화-

어느 재가불자의 간화선 수행일지 내용 일부다. 현상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아는 놈' 즉,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 불자는 "참불선원이 실시하는 5일 집중수행에 참여해 일상에서 '이뭣고' 화두참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심 속 간화선 수행이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간화선을 배우기 위해 멀리 떨어진 산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불자들에게 인기다. 특히 서울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의 '5일 집중명상수행'은 강남지역 불자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

1월 13일 집중수행 회향을 맞아 찾아간 참불선원은 고요했다. 법당에는 4줄로 나란히 앉은 수행자들이 좌선하며 각자의 화두를 타파하고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한 참이 지나 오전 수행 종료를 알리는 죽비소리가 울려 퍼지고, 감고 있던 두 눈을 뜬 50여 수행자들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빛났다.

선원장 각산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스님은 한껏 수행에 몰입한 불자들에게 화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법문을 했다.

"팔만대장경을 아무리 달달 외운다고 해도 내 마음을 모르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바로 보는 수행을 합니다. 선사들의 화두를 이해하려면 언어에 매달려선 안 됩니다. 화두를 던진 스승의 마음, 그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본말전도 된 채 돌멩이만 쫓는 격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뭣고' 화두는 보고 듣고 말하는 행위가 아닌 그 주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음 떠나 깨칠 수 없고, 이는 부처도 경전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접근성 높아 현대인에게 인기
초기불교 수행 · 간화선 접목
2월부터 매달 첫 주 월~금 운영

오후에는 개인별 수행인터뷰와 걷기명상, 좌선이 진행됐다. 각산 스님은 수행자들과 1대1로 대화하며 느낀 점을 물었다. 한 불자는 "처음에는 다리가 아파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적응해가면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던 관점이 허물어져 편안해졌다"고 밝혔다. 그러자 스님은 "그런 마음이 잠을 잘 때도 이어져야 진짜배기라 할 수 있다"며 "지금의 집중수행은 본격적인 일상수행을 위한 기초를 닦는 단계다. 앞으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하라"고 수행을 독려했다.

참불선원에 따르면 5일 집중수행은 위빠사나 명상법과는 다른 부처님 당시 전통가르침인 호흡명상(아나빠나사띠)을 현시대에 맞춰 재해석한 사마타-위빠사나 통찰 집중명상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를 다지고 '이뭣고' 화두로 이끌어 직접 명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집중수행은 참가자들의 호응이 확산됨에 따라 안거 기간에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미 2월 집중수행은 모집공고 3일 만에 마감된 상태다. 참가자들도 재가불자를 비롯해 이웃종교인, 전문직종사자 등 다양한 편이다. 집중수행은 명상입문반을 거쳐야 신청 가능한데, 현재까지 약 1500명이 명상입문반서 기초를 쌓았다.

참불선원 집중수행은 매월 첫째 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행에만 몰두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자율정진 △좌선 △수행지도 법문 △점심공양 △양재천 걷기명상 △즉문즉설 및 수행인터뷰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명상지도자협회 국가등록 민간 명상지도자 자격 이수시간으로도 인정된다. 1577-3696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수행자 인터뷰

금정(69, 모 기업 부회장)

동국대에서 선원장 스님의 강의를 듣고 이곳 명상입문반을 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불교수행에 뜸했는데 나이가 들고, 은퇴를 고민하게 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해봤죠. 10~20년 뒤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테고요. 그리곤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수행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한 차례 집중수행에 참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한 자세를 계속 하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때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게 되더군요. 나도 모르게 깊고 가는 호흡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럴 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행의 맛을 보면서 점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시중(63, 전직 교사)

40여 년 전 불교를 접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심취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퇴직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죠. 재가선방에서 간화선 수행을 1년간 해봤는데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끌어주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순서인데 그걸 모른 채 화두만 쫓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집중수행을 하면서부터는 어느 길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과거에 뭔가 이루겠다는 욕심으로 인해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런 욕심 없이 정진하게 돼 즐겁습니다. 집중수행 이후에도 계속 이 정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긴 듯합니다.

무불심(56, 컴퓨터공학 교수)

예전부터 불교를 믿긴 했지만 경전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깨달음의 길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죠. 2011년부터 참선을 비롯해 여러 수행을 해봤습니다. 특히 한국불교 대표수행법인 간화선도 말이죠. 그런데 제 근기가 낮은 탓인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강 강의를 보고 명상입문반부터 차례차례 공부했습니다. 기초를 잘 다져서인지 이번 집중수행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호흡을 바라보면서 '이뭣고' 화두로 들어가는 방법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보리심(67, 치과원장)

아잔브람 스님이 구룡사에서 강의하고 가신 적이 있는데 그걸 듣고 참불선원에 오게 됐습니다. 불교는 제 모태신앙이었고, 안거수행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장 때문에 번거로움이 꽤 컸죠. 이곳에서 2번의 집중수행에 참가했는데 아침부터 수행하고 집에 돌아갈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수행이 끝나는 날 '아, 살았다'는 마음이 들곤 했는데 이제는 '더 할 수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보리행(39, 회사원)

전 가톨릭신자였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아잔브람 스님 강의를 듣고, 관련 서적을 읽으며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중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생각이 널뛴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까지 괴롭고 힘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취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이것을 내려놓자 고요함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수행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멈추고 내려놓기 위한 것이라는 걸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의 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래 전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에 집중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1월 13일 참불선원 5일 집중수행 회향일에 선원장 각산 스님과 수행자들이 좌선하며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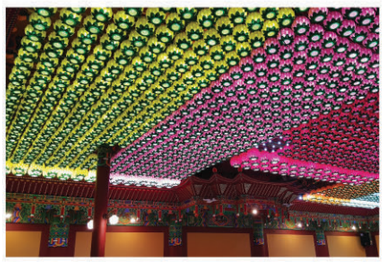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의미 있는 설 선물, 어디 없을까?

"자비 실천하는 불교계 판매처가 정답"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가의 선물 대신 의미가 있는 선물을 주고 받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사회 흐름에 맞춰 불교계에는 승려복지와 소외계층 나눔 등에 수익금을 사용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이런 나눔과 자비실천으로 선물의 의미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설을 맞아 다양한 불교관련 상품과 판매처를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소

승려복지에 수익 활용
jogyebook.com

국수 · 김 혼합세트
국수 500g 6봉, 전장김 5봉, 자반볶음 2봉
판매가 30,000원

조계종 출판사 유통사업부가 운영하는 '승소'의 수익금은 조계종에서 진행하는 승려복지에 사용된다. 이번 설을 맞아서는 '福 선물세트' 19종을 출시했다. 국수 · 김 혼합세트를 비롯해 함초소금세트 등 다양하다. 특히 김 선물세트의 경우 염산처리가 되지 않은 친환경 원초를 사용하고,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는 등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국수 · 김 혼합세트는 3만원, 함초소금세트는 2만 3천원 등 가격대도 저렴하다.



인드라망 생협

귀농인 농산물 수매
shopping.happycoop.or.kr

지장산 벌꿀
1.2kg 2병
판매가 55,000원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은 2003년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기반으로 창립된 조합이다. 최근 설을 앞두고 '행복중심장보기'로 사이트를 개편, 쌀, 사과, 감 등 조합원들이 직접 키운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방사능, 잔류농약, GMO 검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을 제공한다. 인드라망 생협은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귀농인들의 적응을 위해 생산물을 수매해 도시에 판매하기도 한다.



영평식품

사찰 운영 기여
youngpyung.co.kr

죽염사찰장 5종세트
죽염된장 1kg, 죽염고추장 1kg, 조선간장 700ml
판매가 63,000원

세종시 영평사는 영평식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상품인 전통사찰장류는 방부제, 발효억제제,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식품에는 9번 구운 자죽염을 사용한 것이 특징. 청국장과 된장, 고추장 등의 설 선물세트는 10%~30% 할인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통도사 영농법인 등 다양한 사찰에서 스님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산사애

영상포교 발전에 도움
sansae.co.kr

표고버섯 혼합세트
흑화고 140g, 향고 140g, 슬라이스 100g
판매가 49,800원

btn불교tv는 '산사애'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찰음식과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설맞이 선물세트로는 상주감익는마을의 반건시세트와 고산농협의 표고버섯세트 등을 준비했다.

산사애에서는 사찰전통식품관을 통해 해인사 된장, 선운사 황토소금 등 사찰의 다양한 생산품도 판매한다. 산사애 홈페이지는 연식품 모음전 등 불교 관련 음식의 홍보관 역할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영상포교 발전에 활용된다.



연꽃생협

노숙인 및 장애인 단체 기부
welotus.com

초의차세트
초의차 10g, 초의황금계 10g, 초의병차 30g 등
판매가 47,500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불교계 사회적기업인 연꽃생활협동조합도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수익금은 노숙인 시설 및 장애인 단체 등에 기부된다.

연꽃생협은 공익사업 '연꽃愛향기'을 통해 2016년 약 4만점의 생활용품을 노숙인 시설 및 장애인 단체 등에게 기부한 바 있다. 현재 연꽃생협 홈페이지 설특판기획전에는 초의차 세트 등 11개 상품이 준비돼있다.

나눔실천 더하기

불교계 복지관은 설맞이 소외계층 보살핌 '앞장'

설 명절을 맞아 불교계에서 수탁 운영하는 복지관들은 소외계층을 보살피는데 앞장서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들을 찾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광진노인보호센터(대표 이정연)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광진노인보호센터 이용자 어르신들은 1월 26일 자양2동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세배 방법과 요리교실 등 진행할 예정이다.

광진노인보호센터 측은 "어르신들이 설 명절을 맞아 손자 같은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내 유대감을 굳건히 할 생각에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대를 아울러 진행되는 명절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2)458-0350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월 23~2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설명절나기를 위해 음식 · 방한용품 등을 포함한 선물을 전달한다. 한 가구당 3~5만원 상당의 음식과 방한용품이 든 '자비나눔 키트'를 구성, 총 200가구에 선물한다. (02)817-8052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설 명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 이용자들이 즐기는 축제한마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월 25일 센터 내 식당과 프로그램실 등에서 이용자 공동차례는 물론 △설맞이 전부침 △사주풀이 서비스 △전통놀이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측은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어르신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아이디어 자체도 모집을 받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02)6220-8553

방한 · 생필품 곳곳에 전달
전통놀이 · 화합한마당도 개최

송광종합사회복지관(시설장 김재진)은 1월 25~26일 양일간 이용자 중 장애인을 위한 행사에 집중한다. 이날 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윷놀이를 진행하고, 윷놀이 후 떡국 나눔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한다. (062)941-8248

불광사가 위탁 운영하는 **송파노인요양센터**는 이용자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대표적인 설명절 행사를 진행한다. 1월 25일 어르신들은 사망한 입소 · 퇴소자들을 기리며 공동차례를 지낸다. 이후 이용자들이 모여 만두를 빚고 당일 모두 나누어 먹는다. (02)415-0056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전통놀이로 화합을 도모한다. 1월 25일 복지관 내 민속놀이 부스를 운영하고 주민들과 화합 한마당 축제를 연다. (02)458-1664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월 20~26일 동안 종로구 내 경로당 56개소, 홀몸 어르신 450명에 설 선물을 나누고 경로당 내 명절인사 행사와 선물 나눔을 개별로 진행한다. (02)742-9500

금강정사가 위탁 운영하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선영)은 설 명절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자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월 26일 △경로식당 어르신 80명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30명 △시니어대학 어르신 40명 △볼런티어스쿨 참여청소년 50명과 함께 새해 박 터트리기, 전통문화 체험활동, 세주 나눔, 새해인사 등을 진행한다. (02)2617-0410

여주 신륵사가 수탁 운영하는 **여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은희)은 2월 10일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윷놀이 △투호 △노래자랑 등 민속놀이를 개최한다. (031)883-2100

군포 정각사가 수탁 운영하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1월 25일 복지관 내 강당서 이용자 윷놀이 행사를 펼친 뒤 재가 장애인 100가정을 선정, 생필품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031)396-3108

영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도선)은 1월 23~26일 '설명절서비스'를 통해 복지관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라면과 두유를 배분하는 행사를 펼친다. (054)633-6415

조계종 화방사 화방복지원(대표이사 승언)은 1월 24~29일 다채로운 설명절 제수용품 전달 및 위문공연을 준비했다. 29일 오전 8시 노인요양시설 화방동산의 떡국 공양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박초연 씨의 국악한마당 공연과 힐링음악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독거 어르신 43명에 제수용품을 전달하고, 300명에 위문품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불상, 법당시공 및 철거(퇴불), 개금, 단청, 풍수 인테리어 등

좋은 인연으로 성실하게 마음에 꼭 드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미텍 대표 윤승민 두손모음



도금 소불 6치 7치 분당 15,000 ~ 21,000원

■ 전시장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67번지
■ 공 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3층 308호 (신길동, 정우벤쳐타운 2)
■ 연락처 : 010-8523-7718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Templestay로 설연휴 피로 '훌훌'

2017 설맞이 템플스테이

2017 설맞이 템플스테이

지역	사찰명	진행일자	참가비
서울	금선사	1월 27~30일	나를 깨우는 108배, 차담, 소원등만들기
	국제선센터	1월 27~28일	설맞이 합동차례, 윷놀이
	진관사	1월 28일	설맞이 합동차례, 산사음식 체험
	천축사	1월 27~29일	사찰예절습의, 설합동차례, 도봉산 산행
	화계사	1월 28~29일	걷기명상, 사경, 참선, 스님과의 차담
인천	연등국제선원	1월 27~30일	나를 깨우는 108배, 사경, 통알세배, 합동차례
경기	백련사(가평)	1월 27~30일	소금만다라를 통한 촛불명상, 소원지 쓰기, 잣숲길 걷기, 신나는 성불도 놀이
	법륜사	1월 27~29일	복조리 만들기, 해피페이퍼 받기, 내 마음의 불상 그리기, 단체 윷놀이, Dream 드림 유등 띄우기
	봉선사	1월 27~30일	설맞이 타종체험, 비밀의숲 포행, 스님과의 차담
	신륵사	1월 27~30일	자율형
	용문사(양평)	1월 27~29일	촛불명상, 설맞이 겨울산행, 단주만들기, 연잎밥 만들기, 다도체험
	용주사	1월 27~28일(1박 2일)	소리명상, 윷놀이, 소원 연꽃등만들기, 기공형 108배
	육지장사	1월 27~29일	산사의 건강 비젼 체험(발효효소액 섭취, 게르마늄 온구 체험)
	화운사	1월 27~28일(1박 2일)	성불도 놀이, 소망풍선 날리기, 떡국 공양, 설 합동 차례
경남	문수암	1월 27~31일	아침기체조, 민속놀이, 고구마 구워먹기, 만두만들기, 숲길명상
	용화사(통영)	1월 27~28일	편백나무 숲 명상, 용화세계 채색 명상, 윷놀이, 나를 깨우는 108배, 합동차례
부산	홍법사	1월 27~30일(3박 4일)	소원지 쓰기 및 감사명상, 설맞이 타종체험, 아침예불 및 힐링 108배, 차담
경북	골굴사	1월 27~30일	국궁, 선무도 바닷가수련, 민속놀이, 만두만들기, 합동차례, 차담
	보경사	1월 26~30일	자율형
	심원사	1월 27~30일	스님과의 대화, 예불, 마음 내려놓기, 일출명상
	축서사	1월 27~30일	마음나누기, 예불, 마음껏 쉬어가기
	직지사	1월 27~30일	차담, 암자 포행
대구	동화사	1월 27~31일	오롯한 휴식형, 하루에 한 번 스님과의 대화
강원	건봉사	1월 27~28일	건봉사 이야기, 범종체험, 108염주 만들기, 소원등 만들어 탑돌이, 1월 28~30일 등공대 포행
	백담사	1월 27~28일	맥놀이(사물) 명상, 요가형 108배 습의, 서원 탑돌이, 먹기명상, 숲포행, 설날 차례지내기
	삼화사	1월 27~30일	추암(촛대바위) 일출 및 풍등 띄우기, 무릉계곡 두타산 거닐기, 최대한 혼자 쉴 수 있도록 방사 배정
	신흥사	1월 27~28일	요가형 참선, 떡국공양, 한지공예만들기, 통알세배
	월정사	1월 27~30일	참선, 설날합동차례
전남	대흥사(해남)	1월 27~29일(2박 3일)	사찰예절 습의, 예불, 차담, 요가명상, 108 염주만들기, 북미륵암 산행, 숲길걷기
	미황사	1월 27~30일(기간 중 자율선택)	윷놀이, 합동차례, 참선, 다도, 운력
	백양사	1월 27~29일(2박 3일)	독경, 참선, 차담, 윷놀이, 통알, 암자순례
	선암사(순천)	1월 27~30일(3박 4일)	차담, 편백 숲 트래킹, 소원등 만들기, 나를 찾는 108배, 만다라 치유명상
	송광사(순천)	1월 27~28일	자율형
	쌍봉사	1월 27~30일(기간 중 1박 2일)	설날 합동차례, 차담, 소원지 쓰기, 생각비우기
	천은사	1월 27~29일(기간 중 1박 2일)	차담, 소원연꽃등 만들기, 금강송 숲길걷기, 통알세배, 설 합동차례
	화엄사	1월 27~28일(휴식형 연장가능)	윷놀이, 차담, 설날 합동차례, 아름다운 숲길 걷기
전북	내소사	1월 27~31일(기간 중 1박 2일)	차담, 연꽃만들기, 윷놀이, 만다라 명상, 단청체험
	선운사	1월 28~29일	차담, 윷놀이, 108배 및 명상, 트래킹
충북	영국사	1월 28~30일(2박 3일)	은행윷 소품 만들기, 윷놀이하기, 새해연등만들기, 한해를 다짐하는 108배
	석종사	1월 26~29일(2박 3일)	스님과의 차담, 예불, 합동차례
충남	갑사	1월 27~30일	마음나누기, 여의보주 만들기, 계룡산 트래킹, 차담
	마곡사(1)	1월 27~31일(4박 5일)	휴식형
	마곡사(2)	1월 27~28일(1박 2일)	공감명상, 108배, 범종체험 및 예불, 군고구마 구워먹기, 솔바람길 명상, 단주 만들기
	수덕사	1월 28~29일(휴식형 상시운영) 1월 27~28일	설맞이 대박윷놀이, 소원연꽃등 밝히기, 자연의 소리명상, 합동차례
	영평사	1월 28~29일(1박 2일 체험형) 1월 27~30일(3박 4일 자율형)	스님과의 연꽃 차담, 108배하며 소원빌기, 염주만들기, 장군산 포행

대명절 '설날' 유난히 짧은 연휴에 교통 체증까지, 고향에 내려갔다 온 사람도, 내려가지 않은 사람도 명절 후유증에 시달린다. 차라리 설연휴를 사찰에서 보내는 건 어떨까. 당신의 지쳐있는 마음을 달래줄 작은 휴식시간을 추천한다. 바로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자연 속에서 내 안의 자유로움을 찾아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을 덜어낼 수 있다. 올해 설연휴에는 눈이 소복히 쌓인 산사에서 따듯한 차를 마시며 그동안 쌓인 피로도 함께 풀어보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은 '설날'을 맞아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설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전국 40여 곳 사찰에서 진행될 이번 설맞이 템플스테이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소원의 풍등을 띄우는 사찰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강원 삼화사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자연 속에 나를 쉬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촛대바위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 풍등을 띄우고, 무릉계곡 두타산을 포행하며 맘껏 누릴 수 있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윷놀이도 준비되어 있다.

알찬 설 명절을 원한다면 용인 법륜사의 '설 특별 템플스테이'를 추천한다. 1월 27일부터 29일 2박 3일간 이어지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정월초하루에 만들면 만복을 가져다준다는 복조리 만들기부터 해맞이, 내 마음 불상그리기, 단체 윷놀이, Dream 드림 유등 띄우기, 장명루(오색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명절엔 충분히 쉬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다면 양주 육지장사의 '우리 우리 설날 템플스테이'가 있다. 불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비법으로 발효한 산돌배, 산도라지,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등 다양한 효소를 맛볼 수 있고, 게르마늄 온구와 쑥 뜸 온구로 자연치유 체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세배하기, 설 합동 차례, 소원 풍등 날리기, 새해 명상, 윷놀이 등 다양한 설맞이 특별 템플스테이가 서울 ·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지역의 총 45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사단법인 등록번호 191121-0002620

社團法人 韓國佛教 元曉宗 創宗과 宗憲 宣布文

佛教가 이 땅에 들어 온지가 어언 1600여년의 歷史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社團法人 韓國佛教 元曉宗 創宗式을 奉行하면서 韓國佛教 歷史에 새로운 記錄을 남길까 합니다. 본 종은 海東初祖 和諍國師인 元曉聖師님을 宗祖로 모시고 그 분의 和諍. 一乘. 無碍心이 녹아 있는 大衆佛教 生活佛教를 修行 傳法하여 緣起無我 眞面目을 깨달아 貪.瞋.癡 煩惱에서 自由人되어 解脫涅槃에 이르기까지 衆生과 함께 하는 宗團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宗團의 宗徒들은 本宗의 宗祖이신 元曉聖師님의 理念과 思想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佛子로써의 使命感을 가지고 大 願力을 세워 宗徒 모두가 和合하여 本宗의 宗憲과 宗名을 制定하고 宗團의 基盤을 확실하게 세우고 修行的 宗風을 大衆에게 널리 布敎하여 本宗의 法孫이 佛祖의 가피력으로 영원하게 이어지기를 發願하면서 社團法人 韓國佛教 元曉宗 創宗과 宗憲을 宣布합니다.

創宗日 佛紀2561年(서기 2017년) 1월 3일

總務院長 道世 普覺

총재 : 서운 석문 / 중앙종회의장 : 법성 정도 / 총무원장 : 도세 보각
(원효성사님의 학문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로 함께 하실 분 동참 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 98-1 대표전화 055)673-1399 / 010-6633-1480

‘업식의 강’을 건너 아버지에게로…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① 안락국태자 이야기 ㊥

원앙부인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모진 학대를 당하는 속에서도, 왕생게를 외우는 염불의 힘으로 스스로를 유지하여, 무사히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이의 모습은 어쩜 이렇게도 단정하고 예쁠까요. 아이를 본 자현장자는 “이 아이는 7·8살만 되어도 내 집에 종으로 있을 관상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사리분별력이 생기자 다부지게 묻습니다. “다른 애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들은 아들 안락국은 “나를 이제 놓아 주소서. 아버지를 찾아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집에서 도망가면 내 몸이 자현장자의 큰 노여움을 사리라.” 그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고, 그 가여운 뜻을 이기지 못해, 밤에 도주하도록 돕게 됩니다. 하지만, 곧 들켜 두 손이 꽁꽁 묶인 채 잡혀오게 됩니다. 이에 장자는 분노하여, 안락국을 골방에 가두고 얼굴에 자자(刺字: 한 웅큼의 바늘로 피부를 찌른 다음 숫돌물을 집어넣어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겨 중죄인을 표시하는 형벌)를 가합니다. 아들의 곱디고운 얼굴이 이렇게 되자, 원앙부인은 가슴이 무너지고 창자가 찢어졌습니다. 안락국도 엄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두 번째 도주, 앞을 가로 막는 강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에게로 향한 아들의 애달픈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틈을 보아 다시 도주하여 이번에는 무사히 죽림국을 빠져나오지만, 아~ 이번에는 깊고도 넓은 강이 앞을 가로 막습니다. 건너갈 배가 없어 짚단 세 묶음을 띠로 묶어 물에 띄우고, 그 위에 훌쩍 올라탑니다. 젖으면 바로 가라앉을 힘없는 지푸라기 방석에 자신의 운명을 맡깁니다.

짚단 위에 올라 앉아 천지신명께 빌며, “제가 진실로 진실로 아버지를 뵙고자 하니, 바람아 불어라. 저를 강가로 건너게 해 주소서”하고 합장하고 어머님께 배운 ‘왕생게’를 간절히 외우니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 물가로 건너 주니, 바로 아버지가 계신 범마라국 땅이라. 임정사는 또 어찌 찾아갈까. 바람결 따라 염불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짚단을 타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 안락국의 모습.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한 것은 어머니 원앙이 지어 준 ‘왕생게’ 때문이다.



안락국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 상봉하는 모습. 아버지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운다.

장자 집서 일하던 만삭의 원앙부인
학대에도 염불의 힘으로 아들 출산
영민한 안락국, 부친 찾기위해 도주

무사히 빠져나와보니 江 앞을 막아
짚단 위에 올라 ‘왕생게’를 외우니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강 건넌다

도달한 범마라국, 아버진 어찌 찾나
여덟 궁녀의 ‘왕생게’ 실마리돼 상봉
못 깨우친 아비, 아들을 돌려보내는데



아버지가 있는 임정사를 찾아가는 도중, 팔궁녀를 만나는 장면. 소탈한 아낙의 모습이다.

동풍이 불면 그 소리가 원생극락(願生極樂) 나
무아미타불
남풍이 불면 그 소리가 섭화중생(攝化衆生) 나
무아미타불
서풍이 불면 그 소리가 도진중생(度盡衆生) 나
무아미타불
북풍이 불면 그 소리가 수의왕생(隨意往生) 나
무아미타불

기적의 바람 일다, 마법의 주문 ‘왕생게’

이야기 속에는 위험한 고비마다 ‘왕생게’가 그 역할을 단단히 합니다. 홀로 가는 기나긴 수행 길에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라고, 원앙부인이 남편 사라수왕에게 지어 준 게송입니다. 원앙부인의 애틋한 염원은 온 가족을 수호하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왕생게는 사라수왕이 계속 수행을 하게하는 버팀목이 되고, 아들 안락국이 강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기적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주문이 되고, 또 그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안락국은 아버지를 찾아 가는 여정 중에, 여덟 궁녀가 (사라수왕에게 배운) 왕생게를 읊는 것을 듣게 되고, 궁녀들에게 ‘왕생게를 어떻게 아느냐’는 연유를 물은 끝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 두 다리를 끌어안고 엉엉 우니, 아버지가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이기에 늙은이의 다리를 안고 이토록 우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안락국이 왕생게를 외운즉, 왕이 그제야 아들인 줄 알고 길가에 주저앉아 옷이 잠기게 울었습니다. “네 어머니 나를 잃고 시름으로 살더니, 이제 또 너를 잃고 눈물로 살 것이니 어서 돌아가라!”

아버지와 아들은 슬픈 뜻을 이기지 못하여 오래 있다가, 결국 헤어집니다. 이에 왕은 “알고 가는 이도 끊어진 이런 흔미한 길에 누구를 보려고 울며 왔느냐. 대자비 원앙부인과는 공덕 닦는 내 몸이 정각(正覺)하는 날 만나보리라”고 노래합니다.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된 태자는 다시 강가에 와서 짚단 방석을 타고 왕생게를 불러 바람을 일으켜 죽림국으로 돌아옵니다. 뭍에 올라오는 도중에 소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락국이는 아비를 보았으나, 이번에는 어미를 못 보아 시름이 더욱 깊겠구나.” 이에 안락국은 “무슨 그런 노래를 부르더냐”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 어머니를 못 보게 되었다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알아두면 좋은 人文교양 상식

안락국이 만난 ‘강’의 의미는?

아버지를 향해 달리던 안락국 앞을 가로 막은 마지막 관문은 검푸른 ‘강물’이었습니다. 이는 속세(이 세상)와 피안(저 세상) 사이에 흐르는 강입니다. 바리데기 공주, 황주신 성우양 등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 설화에서도 주인공의 우여곡절 천신만곡의 여정 막바지에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이승과 저승’ 또는 ‘이승과 천상’ 사이를 가로막는 ‘강’입니다. 이 강은 속계를 벗어나는 경계의 비유로서, 한갓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목숨마저 던지며 나아갈 것인가, 일생일대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강이 아니고 바다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바라문의 딸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불타는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심청전〉의 경우에는, 심청이가 바다의 심연 속으로 몸을 던지니 용궁이라는 극락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강이든 바다이든, 소용돌이의 폭류가 죽음과 삶을 동시에 품는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차안 · 피안 가로지르는 ‘업식의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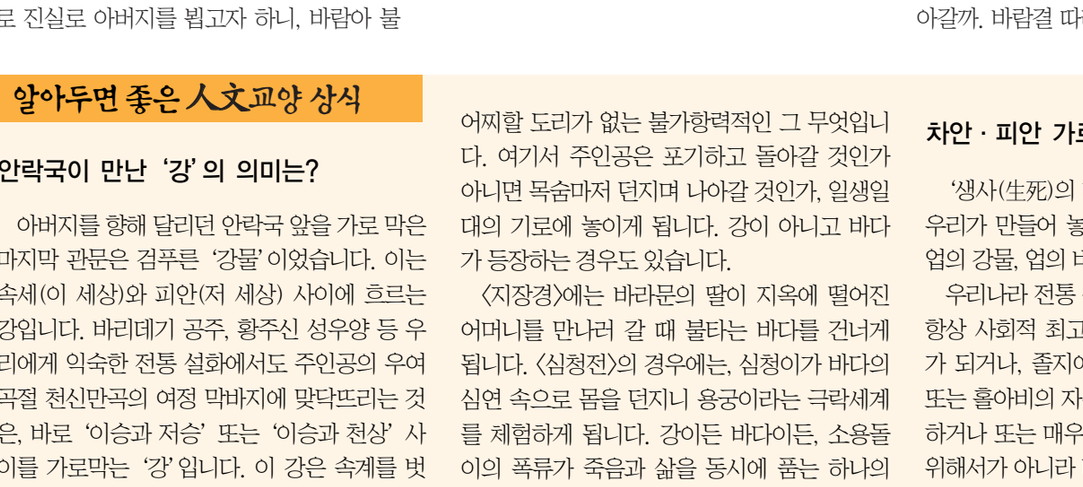
‘생사(生死)의 메타포’로서 나타나는 강물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業)의 소용돌이입니다. 업의 강물, 업의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설화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은 항상 사회적 최고의 약자입니다. 어릴 때 혼자가 되거나, 졸지에 부모를 잃었거나, 홀어머니 또는 홀아비의 자식이거나, 사회적 신분이 미천하거나 또는 매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내는 착한 천성을 가졌습니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나선 험한 여정 속에는 먼저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는 수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강물 앞에는 수십 채의 검은 빨래가 쌓여 있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산더미 같은 검은 빨래를 모두 흰 빨래로 빨아 놓아야만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는 세세생생 쌓은 번뇌업장을 상징하며, 이를 모두 깨끗하고 하얗게 맑혀 놓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식(業識)과 정면 대결했을 때만 업의 윤회를 끊을 수 있습니다. 선가(禪家)에서는 ‘백천간두에서 몸을 날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이 나타났을 때, 강물에 휩쓸리지 않는 길은 단 하나! 그것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으로 보이던 업식의 바다도 ‘반야지혜’의 불을 밝히면 한 갓 환영에 불과합니다. 강물에 몸을 던졌을 때 죽는 것은 에고로서의 ‘자아’입니다. 계속 철견해 나가다 보면 드넓은 광활한 자유의 바탕이 드러납니다.

〈금강경〉에서는 “구경무아(究竟無我: 마침내 나는 없다)”를 말합니다. 마침내 내가 없어지자, 진정한 활짝 열린 마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자비’는 항상 우리를 지켜줍니다.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제9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원효 ‘미타증성게’, 보현행 · 점수 나타낸 詩”

김호성 교수, 〈불교학연구〉 특집논문서 주장

보조 ‘돈점설’ 偈 해석 출발점
“미타증성게 화엄적 점수 상통”
보광 · 김상현 등 기존학설 반박
〈무량수경〉 수행관, ‘점수돈오’

원효 스님(617~686)의 정토사상을 알 수 있는 주요 저술은 〈유심안락도〉, 〈무량수경종요〉, 〈아마타경소〉 등이다. 다른 하나의 저술은 보조 지눌(1158~1210)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하 절요)〉에 인용된 〈미타증성게〉이다. 〈절요〉에 인용된 〈미타증성게〉는 7언 8구의 게송으로 법장 비구의 정각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같은 〈미타증성게〉에 대한 보조 스님의 인용이 자신의 돈오점수설을 입증한 전거라는 것은 선행연구(보광 스님, 故김상현)를 통해 알려졌다. 〈미타증성게〉 자체를 보조의 돈오점수설에 입각해 해석하는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끈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불교학연구〉 49집에 게재한 특집논문 ‘원효의 〈미타증성게〉와 보조지눌’에서 보조 스님의 돈오점수설에 입각해 〈미타증성게〉를 해석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정작 게송의 인용자인 보조 스님의 관점은 배제돼 있음을 지적하고 “보조의 돈오점수설이 〈미타증성게〉를 해석하는 하나의 출발점임을 깊이 천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조 스님이 돈오점수 주장 근거로 화엄사상이 배경에 놓여있음을 전제하고 〈미타증성게〉 속의 돈오점수와 화엄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미타증성게〉의 1~2구는 게송 주인공 법장 비구의 소개이며, 3~4구는 정각의 과정, 5구는 정각이자 제도 중생을 위한 길의 시작으로 봤다. 6~8구는 제도 중생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크게 살피면 1~4구는 돈오와 자리행(自利行)을 5~8구는 점수와 이타행(利他行)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타증성게〉에서의 점수가 유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이었음을 생각할 때, 〈마타증성게〉와 〈절요〉에서 말하는 점수는 화엄적 점수라는 데 상통점이 있다”며 “‘법장보살이 중생을 어여삐 여겨 48가지 초시간적 서원을 세웠다’는 6 · 7구의 입장은 화엄적 이타행, 보현행이며 화엄적 점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타증성게〉는 법장보살의 자리행 · 돈오 · 왕상회향만을 노래한 시(詩)가 아니라 이타행 · 점수 · 환상회향까지 나타내는 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무량수경〉과 〈미타증성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미타증성게〉가 〈무량수경〉을 요약하는 중송(重頌)”이라는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반박 근거로 △〈무량수경〉에 나오는 법장 보살의 수행은 선이 아닌 보살행 △법장 보살의 발심과 성불에는 5겁이라는 시간 차 존재 △법장 보살의 정각 과정은 발심-발원-수행-수기-성불로 완성 등을 들며, 구조적 차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무량수경〉에 나타난 수행은 돈오점수가 아닌 점수돈오”라면서 “원효의 〈미타증성게〉가 반야중관 · 화엄 · 선적 맥락에서 〈무량수경〉을 읽었고, 이 점을 보조 스님의 호응을 얻어 인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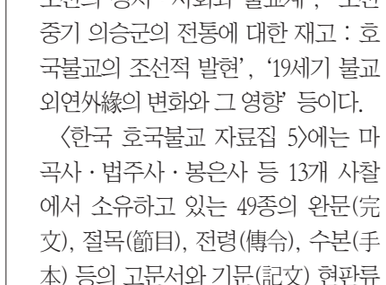
한편, 〈불교학연구〉 49집은 특집 주제로 ‘원효와 지눌의 재해석’을 다뤘으며, ‘지눌의 돈오점수와 이문정혜의 쌍수’(정혜정), ‘북미불교의 원효 인식과 이해’(김지연)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투고 논문으로는 ‘석전 박한영의 〈석림한화〉에 드러난 글쓰기 양상’(민희주), ‘중국불교에서 수계갈마의 변천’(이자랑), ‘선 수행에 나타난 분심과 자비에 대한 소고’(오용석), ‘니까야로 본 중론의 십이연기’(우동필) 등 9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호국불교 연구 망라한 논문 · 자료집 발간

불사연, 〈호국불교 재조명5〉 등 출간



호국불교연구 사업으로 진행된 연구 논문과 자료집들이 잇달아 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016년도 호국불교연구 사업의 결과물인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 자료집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5〉,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금산사金山寺〉를 발간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는 지난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와 토론회에서 발표된 5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주요 논문들은 지난해 3월 토론회에서의 ‘3 · 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비롯해 11월 ‘조선시대의 국가와 불교’ 주제 학술세미나의 ‘조선 초기 불교계의 보寶 운영과 그 의미’, ‘16세기 조선의 정치 · 사회와 불교계’, ‘조선 중기 의승군의 전통에 대한 재고 : 호국불교의 조선적 발현’, ‘19세기 불교 외연外緣의 변화와 그 영향’ 등이다.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 5〉에는 마곡사 · 법주사 · 봉은사 등 13개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는 49종의 완문(完文), 절목(節目), 전령(傳令), 수본(手本) 등의 고문서와 기문(記文) 현판류를 수록했다. 이 자료들은 주로 중앙의 예조나 각 지방의 감 · 순영 내지 소속 군현과 해당 사찰들이 주고받은 공문서이거나, 내수사(內需司) · 영빈방(暎嬪房) 등 왕실 관련 부서와 사찰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이다. 대부분 진상(進上), 각종 승잡역(僧雜役)의 존치와 철폐를 둘러싸고 사찰과 해당 관서 사이에 벌어지는 논란의 결과가 밝혀져 있다.

호국불교사찰에 대한 연구자료집인 〈금산사〉는 호남을 대표하는 의승장 처영 스님과 태능 스님의 생애와 호남 의승활동과 금산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집은 〈금산사사적〉, 〈선조수정실록〉, 채제공(蔡濟恭)의 처영 영찬(影贊), 〈소요대선사행장(逍遙大禪師行狀)〉 등의 자료를 종합 · 정리했다.

한편,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2011년부터 호국불교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호국불교 재조명〉, 〈호국불교 자료집〉, 호국사찰자료집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대동여지도엔 불교가 어떻게 투영됐나

불교사회정책硏, ‘대동여지도와 사찰지명’ 세미나

오는 2월 6일 국제회의장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김정호가 제작한 한국 최고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19세기 조선의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지도에는 230여 개소의 사찰명이 등재돼 있다. 현존하는 전통사찰의 수보다는 한참 적지만, 당시 문화적 상황과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대동여지도에 투영된 사찰 지리적 정보를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는 오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대동여지도와 사찰지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동여지도와 불교문화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상학 제주대 교수가 ‘조선 지도학의 금자탑, 대동여지도의 가치와 의의’를, 김기혁 부산대 교수와 류명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 공동으로 ‘대동여지도의 사찰지명 연구’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에는 前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을 좌장으로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과 최연 인문지리기행 ‘서울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대동여지도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대동여지도의 연구와 활용을 통한 불교인문학 분야 개척과 불교문화유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불문연, 티베트어 강좌 개설

오는 2월 6~17일 진행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는 ‘금강아카데미 제9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따시델레! 티베트어’를 개설한다.

오는 2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간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교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과 티베트어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의는 금강대 종합강의동에서 문법과 강독으로 나눠 하루 6시간 동안 강의가 이뤄진다. 강사로는 정상교 · 차상엽 금강대 HK교수가 참여한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기숙사와 식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강의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다. (041)731-3614

신성민 기자

韓 · 中 · 日 학자, 제종교장 연구 논하다

고려대장경연구소 13일 의천 제종교장 학술대회
교장문헌 연구 방안 논의

〈고려 제종교장(諸宗敎藏)〉 문헌에 대한 연구 현황을 만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1월 13일 서울 안국동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2017 고려교장 국제학술회의-동아시아 불교장소(佛敎章疏)와 대각국사 의천의 제종교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지난 5년간 〈제종교장〉의 국내외 조사와 전산화를 진행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한 공개와 향후 연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는 ‘교장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 논문을 통해 “〈고려 제종교장〉은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동아시아에서 유통하는 경율론 삼장에 대한 주석서인 장소(章疏)를 수집해 간행하고 그 목록을 만든 것”이라며 “1232년 몽고의 2차 침입으로 목판이 모두 불탔다. 그동안 교장은 목록을 정리해놓은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이란 고문헌에 의해서만 전해져 왔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월 13일 ‘2017 고려교장 국제학술회의-동아시아 불교장소(佛敎章疏)와 대각국사 의천의 제종교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제종교장 문헌을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할 것인가’ 논문을 통해 향후 연구 방법과 과제 등을 살폈다.

남 교수는 제종교장 문헌 연구를 △판본학 △목록학 △교감학 등으로 분류하고, “교장에 대한 개념정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흥왕사나 광교원 이외에도 해인사 등지에서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장 등이 산일돼 간행기관에 대한 사료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남 교수는 “교장과 의천의 사상, 활동 등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동아시아 삼국에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교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번역이나 집중연구를 통한 학술 역량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章疏) 문헌을 조사했다. 연구소는 한국, 중국, 일본 삼국에 전해지는 교장문헌 250여 권을 확보해 조사와 연구, 이미지 촬영을 완료했으며 현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중이다. 신성민 기자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 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 60만원
  월령도
  주역, 명리, 성명학 -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 연 정 사 운암 합장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불교계는 달라져야

한국불교는 달라져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담겨있을 뿐 살아 움직이는 일상생활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열려 있으나 사찰은 닫혀있다. 법당 문은 열려 있으나 승려의 의식구조는 막혀 있다.

불교TV의 화면에는 온통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영험 설화가 법복을 걸친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사찰을 알리는 홍보 선전물이 마치 구걸하듯 신도들에게 권선문으로 다가온다. 조계종출판사에서 매년 발행되는 사찰 달력 뒷장에 원진살, 상충살, 들삼재, 날삼재가 빼곡하게 박혀있음에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보는듯해 안타까움이 그지없다. 사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영가천도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찰이 부지기수요, 대학입시 합격기도 동참금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불교는 좌불 신앙이 뿌리가 깊어서인지 변화를 두려워하며 받는 불교에 익숙해져 있다. 육바라밀의 으뜸 덕목인 보시(布施)에 있어서도 승려는 베푸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한국불교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닫힘 아닌 열린 불교를 지향해야

초청법회에 초대되는 스님일 경우 연륜과 수행력도 화려할 터인데 법회가 끝난 후 주최 측에서 내미는 돈이 든 봉투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모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스님이 재보시(財布施)는 못하더라도 법보시(法布施)는 당연한 몫이고 의무일 터인데 한 시간 남짓 법문하고 50만 원, 100만 원을 챙겨간다니 법보시를 실현할 날이 언제일지 묻고 싶다. 제발이지 먹여 살릴 부양가족이 없는 스님들이 가난하게, 검소하게, 깨끗하게, 당당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정진하는 기본자세를 잃지 않으며 상식이 통할 수 있게 개운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조계종단에는 100여 곳이 넘는 대중 선원이 있다. 여름 · 겨울의 안거 기간에 2~300여 명의 수행승들이 모여 정진하는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본다. 다만 수행하는 방법과 간화선(看話禪)을 참구하는 간절심에 대해 뼈아픈 성찰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짜인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도식화된 화두(話頭)로는 간절심이 이어질 수 없을 뿐더러 선, 후배가 한 방에서 정진하는 편안한 풍토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생동안 선원에서 수행의 외길을 걸어오신 어느 원로 스님께서 오매일여(寤寐一如)를 간화선(看話禪)의 마지막으로 거쳐야할 단계로 설명하고 있음은 지극히 왜곡된 안타까운 일이다. 〈육조단경〉의 주인공인 행자 혜능은 참선에 대한 기초와 습의 과정도 없이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절차 없는 참모습을 보여주질 않던가. 〈종경록(宗鏡錄)〉에서 연수선사가 밝히고 있듯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빠르고 더딜 수 있음을 인정해야 옳은 것이다.

한국의 선불교에는 스승다운 스승이 방장이나 조실을 맡아 후학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문중의 서열 위주로 자리에 오름은 개탄하고 개탄할 일이다. 조실, 방장이 법력(法力)의 개안종사(開眼宗師)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중의 서열 다툼으로 자리차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활발발(活潑潑)한 법거량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20년, 30년 선원에서 안거(安居)한 수행경력이 화려한 자랑거리로 등장하는 현실은 부끄럽고 마음 짠한 달라져야 할 일이다.

한국불교에서 가장 달라져야 하는 것은 출가집단인 스님 쪽이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승려생활이 직업화되어 가는 느낌도 날이 갈수록 그 둘레를 넓혀가고 있다. 신도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으나 주지스님의 주머니는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넌센스의 희극이요, 이솝우화이다. 신앙과 종교의식이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회에서도 환갑잔치, 칠순잔치가 사라진지 오래인데 출가 수행승이 버젓이 해마다 생일상을 받고 있다면, 환갑 · 칠순 · 팔순잔치를 벌인다면 이 어찌 수행승의 아름다운 회향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일부이긴 하나 고승(高僧) 생가(生家) 복원도 깊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인도와 중국, 한국불교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 조계종단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인물의 평가는 사후(死後) 최소한 10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할 터이고 덕 높으신 스님일수록 생가 복원 따위로 덧칠할 필요도 더욱 없을 터이다. 꽃상여에 만장이 번거롭게 따르는 장례문화, 이 절(寺) 저 절(寺)로 옮겨 다니는 49재 풍습도 사라져야할 악습임을 밝혀둔다.

一行三昧… 육신의 무상함 이기는 해법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의 4조가 된 도신 대사(道信:580~651)는 어려서부터 불교의 해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출가하여 사미가 된 후 14살 때 환공산(ø◎公山)에 머물던 승찬 대사를 찾아가 절을 하고 물었다.

"원하옵건대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법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승찬 대사가 되물었다.

"누가 너를 속박하였는가?"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탈을 구하는가?"

이 말 끝에 도신 대사는 크게 깨닫고 9년 동안 승찬 대사를 시봉했다. 훗날 이 문답이 '도신해탈'이라는 공안 중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중국 선종사에서 많은 대중이 모여 회상(會上)을 차리게 된 것은 4조 도신 대사 때부터다. 만년에 그가 파두산(破頭山, 쌍봉산)에 30여 년간 주석할 때 문하의 제자들이 500여 명이 됐다. 홍인(弘忍)대사에게 법을 전해 조사위를 잇게 하고 그의 문하에서 우두종(牛頭宗)을 세운 우두법융(牛頭法融:594~657) 스님이 배출됐다. 법융 스님은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을 주장하여 독특한 선법을 선양하였다.

〈능가사자기〉 '도신장'에는 자신의 법에 대해 언급해 놓은 말이 있다.

"내 법의 요점은 〈능가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과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에 근거를 둔다."

그의 선법 특징을 나타내는 말에는 수일불이(守一不移)와 섭심(攝心), 간심(看心), 일행삼매(一行三昧) 등이 있다. 하나를 지키면서 옮기지 않는다는 '수일불이'는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의 화합인 신체가 무상함을 깨닫고 공(空)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을 시종일관 수행한다는 말이다. 일행삼매란 좌선 만이 선의 능사가 아니라 모든 활동영역에서 선이 실천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일행삼매에 드는 자는 무수한 제불법계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다리를 들고 내리는 것까지 도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행위와 거동이 모두 깨달음이다."(入一行三昧者 盡知恒沙諸佛法界 無差別相 夫身心方寸 擧足下足 常在道場 施爲擧動 皆是菩提)

이는 〈유마경〉에 설해져 있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다리를 들고 내리는 것까지 도량으로부터 와사 불법에 머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諸有所作 擧足下足 當知皆從道場來 住於佛法矣)

〈경덕전등록〉 3권 '도신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당 태종이 도신 대사가 터득한 불도의 깊은 이치를 흠모하여 서울로 오게 하였으나 대사는 황제에게 글을 올려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황제가 이러기를 세 번 거듭하였지만 도신 대사는 끝내 질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네 번째는 황제가 노하여 '이번에도 일어나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사신이 절에 도착, 황제의 말을 전해주자 도신 대사는 목을 길게 뽑아내 칼에 갖다 대면서 베어가라는 시늉을 하였다. 얼굴빛이 태연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사신이 남다른 인물이라 여기고 그냥 돌아가서 황제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자 황제는 스님을 더욱 찬탄하고 존경을 하면서 보배와 비단을 하사했다고 한다.

제자인 홍인 대사가 황매현(黃梅縣) 동산(東山)에서 선법을 전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도신 대사와 홍인 대사의 법을 병칭해 동산법문(東山法門) 또는 동산정문(東山淨門)이라 하였다.

〈선문염송설화〉 108칙에 운거요원(雲居了元) 읊은 송이 있다.

"속박됨이 없이 명백하게 해탈한 몸이여! 서산 언덕 깊은 곳에 한 송이 꽃이 피어 봄소식을 전하네. 설령 문황(文皇)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주(㠯州)의 광제(廣濟) 사람이었을 것이네."

꽃 한 송이가 무한한 봄소식을 전하고, 한 방울의 물에도 거대한 바다의 짠맛이 느껴진다는 뜻으로 속박이 없는 해탈 이외에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있겠느냐는 말이라고 설화에서는 보충 설명을 하였다.

대사는 72세의 일기로 좌선한 채 입적하였다. 100여년이 지난 대종(代宗) 때에 와서 대의선사(大醫禪師)라는 시호와 자운(慈雲)이라는 탑명이 내려졌다.

팔만사천 근기따라 수행도 세분화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④ 달마와 〈금강경〉

눈이 모양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혀가 맛을 볼 때, 몸이 촉감을 느낄 때, 무엇을 생각할 때는 욕계와 색계입니다. 있음과 없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일체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욕계, 색계를 벗어나 무색계의 보살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49년간 팔만사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팔만사천 분별망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팔만사천 분별망념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이 팔만사천 법문입니다.

팔만사천 법문을 또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비유한 것은 팔만사천 분별망념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와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손가락은 도구와 표식으로, 표식에 의지하여 물건을 찾고 손가락을 의지하여 달을 보게 되지만, 달은 손가락이 아니고 표식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팔만사천 분별망념도 이름이고 팔만사천 법문도 이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며, 티끌이 아니고 이름이 티끌이며, 이름이 부처이고, 이름이 여래(如來)이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삼계 가운데 무색계의 중생들을 위해 설하신 것입니다. 〈금강경〉은 보살 10지, 4선, 4정, 5온의 뜻을 담은 경전입니다.

보살지(菩薩地)는 색, 수, 상, 행, 식이 온전히 공함을 깨달을 때 증득하는 과위로서 성인의 경계입니다. 보살지인 성인의 경지는 우리들의 언어와 문자, 생각으로 접근 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언어와 문자,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런 수행 과정이 현재 지구상 우리들의 근기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마 대사는 이러한 내용을 중국에 전했습니다. 인도 27대 반야다라 존자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달마 대사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반야다라 존자가 달마 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너른 땅에
길 하나 제대로 없어
질손(姪孫)의 발뒤꿈치만
바짝 좇아야 하겠구나.
금계(金鷄)는 용하기도 하지
쌀 한 톨 입에 물어
시방(十方)의 나한승(羅漢僧)을
공양(供養)하는구나.

중국 땅이 비록 넓으나 불법이 널리 펼쳐지지 못하여, 불법을 널리 펼치는 선사의 뒤를 따를 뿐이란 것입니다. 쌀 한 톨을 시방의 나한승에게 공양한다 함은, 한 마음의 일체중생들을 깨우침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달마 대사는 반야다라 존자 열반 후 남천축국에서의 교화를 마치고, 뱃길로 중국 남해에 이르러 양나라 금릉에 도착했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으나 달마 대사는 무제의 근기가 불법에 맞지 않음을 알고 양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때 양나라 지공(志公) 조사가 양무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서역 남천축국에서 '보리달마'라는 승이 왔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양무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소."

지공 조사가 말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만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무제가 묻기를 "서역 남천축국의 보리달마가 누구였던가요?" 지공 조사가 답하기를, "그는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해 받은 관세음보살의 후신입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보현행 담은 떡국떡으로 새해 자비를”

보현회, 1월 7~25일 이웃 위한 떡 판매

보현회 ‘사랑의 나눔’ 떡 판매
2,240kg 햅쌀로 지은 최고급 재료
수익금, 소년소녀가장에 교복 지원
회원 가족들 동참, 36년 자비행


떡국떡을 담으며 보현회 회원들이 활짝 웃고 있다. 매년 보현회는 소년소녀가장들의 교복 맞춤을 위해 떡을 판매하고 있다.

새해 떡국에 사랑을 담는 이들이 있다.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다. 보현회는 매년 ‘특별한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 떡국떡을 제작해 판매한다. 36년 동안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쳐온 보현회가 학생들의 눈물에 마음 아파 시작한 일이다. 교복을 맞춰준 지 벌써 16년 세월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평소 인연을 맺고 있던 성우원, 평화재활원, 천마재활원,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치매노인센터 더불어 사는 집, 국립마산(결핵)병원,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직업재활원 등에 떡을 무료로 전달하며 새해 건강을 기원한다.

그들의 판매처는 따로 마련된 따뜻한 가게가 아니다. 아파트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떡을 판매한다. 1월 12일, 칼바람이 무섭게 불었던 날씨에도 부산 대연동 대우아파트를 찾은 회원들은 총 60포의 떡을 팔았다.

그들은 ‘생각보다 적은 양을 팔았다’는 질문에 “떡은 생물(生物)과 같아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지어서 팔면 재고가 남아 맛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보현회 회원들은 아침 첫차를 타고 부산 좌천동에 위치한 보현정사를 매일 찾는다.

오랜 세월 정성과 노하우가 쌓인 이유일까?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 외에도 주문처가 곳곳에 있다. 회원들은 직접 배달하는 동시에 주문자들에게 떡 판매의 취지를 설명해줘 ‘나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1월 16일 보현정사에서 떡 배달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들과 안성이 회장을 만났다. 안성이 회장은 “베품을 위한 일이라 설명하면 단골처럼 주문을 하는 분들이 있다. 해운대 법륜사 조실 스님처럼 학생들의 교복 지원금을 직접 보시해 주시는 분도 계신다”며 “떡 판매금 중 인건비를 남겨 교복 지원금를 마련한다. 매년 25벌씩 소년소녀가장들과 종립 학교 학생들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의 평균 나이대가 60대를 훌쩍 넘어섰다. 회원들은 40년 활동이 아니면 보현행자라고 명함도 내밀 수 없다며 크게 웃는다. 벌써 90세를 넘어선 분들도 있다. 하지만 나눔행을 그만두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한다.

최춘자(74 · 다대동) 씨는 “집이 멀어 새벽 첫차를 타고 나오지만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어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다. 뿌듯함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일이 마치면 쑤시는 곳이 있다”며 싱긋 웃는다.

조영희(64 · 구포동) 씨는 “떡 1개당 무게가 2.2kg을 넘으니 6개만 들어도 14kg이 넘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5층까지 직접 계단으로 가져다주는데 팔이 빠질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일을 할 때는 추운지도, 힘든지도 모르겠다”며 웃어보였다.

회원들의 활동에 가족들의 동참은 필수다. 남편들은 복 짓는 일에 ‘강제동원’ 된다고 투덜대는 척 하지만 얼굴은 싱글벙글하다. 먼 곳에 떡 배달을 해야 할 때는 퇴근 후 망설임 없이 운전대를 잡는다.

전영자(61 · 명장동) 씨는 “6살 손자가 있다. 손자 재준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들고 떡을 팔면 주민들이 그냥 지나치질 못하더라”며 “손자도 즐거워하고 어린 아이가 나눔을 위해 발로 뛰니 ‘산 교육’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족들이 나눔에 동참하니 회원들은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진다. 안성이 회장은 “학생들을 위한 나눔 활동은 매년 진행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새해를 밝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마련된 교복금은 2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각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며, 떡은 1월 7~25일 판매한다.

(051)636-4531

하성미 기자

스님이 가르쳐준 호흡 명상 ‘好好’

〈하오하오〉

범어사, 템플스테이 통한 계층 포교 ‘활짝’


금정총림 범어사가 1월 16일~17일 대만과 중국에서 찾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범어사 경내에서 진행했다.

대만과 중국서 온 대학생들은 허리를 펴고 앉았다. 차근히 설명들은 대로 결가부좌로 자세를 잡았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 쉬며 코끝과 배를 관찰했다. 호흡 명상을 체험하는 그 순간 산사에 고요함이 내려앉는다. 사찰의 참된 면모를 만나는 순간이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16~17일 대만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동아대 자매대학교인 중국 란주대학교와 대만 국립중정대학 등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한국 학생들까지 총 60여명이 동참했다.

학생들은 사찰 예절교육 습의를 비롯해 발우공양과 차담 및 명상, 새벽예불, 108배서원주 만들기 등에 참여해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사찰예절 시간에는 범어사 연수국장 지광 스님이 직접 명상자세와 차수, 절하기 등을 지도했다. 스님은 차수를 하고서 걷는 것은 산란해지기 쉬운 마음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수행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전달했다. 또한 스님은 “합장할 때 한 손은 나 자신을,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며 “마음 모아 둘이 아닌 하나임을 표현하기 위해 합장으로 인사하고, 그 가운데에는 타인을 나 자신처럼 공경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호흡 명상을 직접 실참한 학생들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명상에 더욱 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류팡윈(23 · 대만) 씨는 “대만에서는 직접 템플스테이를 접할 수가 없다.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아서 기쁘며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친짜후이(23 · 중국) 씨는 “한국 불교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오기 전에 108배에 대해 들었다. 기대도 많이 되고 스님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연수국장 지광 스님은 “1박2일 짧은 기간이지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차분히 잘 알아차리고 잘 느껴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범어사는 2017년 새해 다양한 계층 포교에 앞장선다는 다짐이다. 특히 일본 33관음성지 순례팀이 3월말까지 매주 범어사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아울러 4월 22~23일에는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자녀와 학부모 30명이 참가해 산사의 정취와 여유를 만끽하고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진다.

하성미 기자

천진불의 고운 화음, 세상을 맑히다

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개최



천진불의 맑고 고운 화음이 객석을 채웠다.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하는 음성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환호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는 1월 18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제1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했다.〈사진〉 ‘새처럼 날아라 별처럼 빛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합창제는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제주 약천사), 상림어린이합창단(함양 서암정사), 대원선재합창단(영도 대원사), 단이슬어린이합창단(부산 관음사)이 참가했다.

합창제에 참여한 팀들은 부처님오신날, 스님 생각, 십대제자, 연꽃향기 등 찬불가 뿐 아니라 눈꽃송이, 색종이 마을, 초생달 등 일반 동요로 풍성한 무대를 장식했다. 아울러 최예림 · 전해옥의 가야금병창 ‘소리디딤’ 팀의 공연과 현직 음대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찬불가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청공중창단이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 출연자가 함께해 ‘나눠요’와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아울러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증명인 지현 스님은 각 합창단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오늘 천진불들의 합창으로 어른들 마음에 다시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어른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인 정토를 장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원력”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문화 교류로 가교 역할 할 것”

2017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신년하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이하 한일불교협의회)는 1월 18일 부산 코모도 해마루 홀에서 2017년 신년하례를 개최하고, 새해 다짐으로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 내는 불교문화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사진〉

백명숙 회장은 “2017년에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한일 관계를 불교문화교류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13년 동안 여성부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던 것은 스님들의 가피와 기도, 그리고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이사 종호 스님은 “여성 불교의 거목인 백명숙 회장님과 집행부들의 노고가 크다”며 “앞으로도 세계불교 포교에 앞장서는 여성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달리는 포교사’ 정법호출택시 발대식



‘움직이는 법당, 달리는 포교사’ 대구 정법호출택시 발대식이 1월 17일 정법호출 혜림원 2층 법당에서 봉행됐다.〈사진〉 이 행사는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 신행단체인 정법호출택시가 정유년 새해 포교 원력을 세운 자리로,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대구 큰절 대륜 스님과 정법호출 이갑희 회장, 곽병해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총동문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동참했다.

대륜 스님은 “대구를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달리는 포교사로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님의 정법 교육과 철저한 자기 수행, 성찰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갑희 회장은 “움직이는 법당, 달리는 포교사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겠다”며 “포교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해내고야 마는 것”이라고 목표를 세웠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전 선 시 공



“빛고을 광주 밝힐 燈 만들어요”

광주불교연합회, 전통등 강습회 개최

전통등(燈)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강습회가 빛고을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월 13일부터 3일간 광주불교회관 2층에서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지원으로 ‘2017 빛고을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를 열었다. 15개 사찰과 단체에서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이번 강습회에는 불교사물인 목탁, 법고를 비롯해 달팽이, 산 등 다양한 형태의 등 만들기 과정이 진행됐다.〈사진〉

전영일 공방 전통등 작가들과 함께 4개조로 편성된 강습회는 13일 첫날 골조 만들기, 14일 배접, 15일 채색과정으로 매일 9시간씩 총 27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습회에는 광주 이외에도 화순과 완도사암연합회에서 참여해 전남지역 등 만들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증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당시 간절한 마음으로 등불을 밝힌 여인의 불빛이 2500년 지난 지금도 이야기되듯이 한국의 전통문화인 전통등이 소멸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며 “광주는 빛을 상징하는 도시로 전통등을 보급하고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습회에 참여한 만덕사 신도 서정남 불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한지를 골조에 배접하고, 불을 켜면서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됐을 때는 참여한 강사님과 10명의 조원들이 정말 즐거워했다”고 참가소감을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015년 1월 등 강습회를 시작으로 광주불교회관 지하에 공방을 만들어 행렬등과 장엄등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현재 150여 명의 강습회 참가자와 10여 명의 전통등 전문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절 앞 잔치로 외로움 해소되길”

연꽃마을 자비원, 암환자 · 독거노인 돕기 위안잔치



전주시 노인복지봉사회 연꽃마을 자비원(대표 정인)이 민족 명절 설을 기념해 암 환자 및 독거노인 150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사진〉

경로잔치는 1월 19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정인 스님, 소담불교박물관장 법성 스님, 임현기 한국노인복지봉사회장, 이창승 르윈호텔 회장, 전주시 사회복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 수 한방병원의 건강상담과 아리랑 예술단의 위문공연, 나눔위안잔치, 장기자랑,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정인 스님은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할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잔치마당을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한 선물과 경로잔치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사회복지과를 통해 추천된 독거노인들에게는 지역 내 독지가와 업체들이 후원한 쌀 20kg, 라면 1상자, 발효홍삼엑기스, 황칠엑기스, 허리 및 무릎 보호대, 건강식품과 응급 구호약품, 생활필수품 등 총 7천여만 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됐다.

한편 정인 스님은 1996년 효자동에서 의료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사랑방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암 환자 등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2002년부터 아중리에 연꽃마을 자비원을 열고 노인과 무연고 아동 등을 보살피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老비구니 수행관 건립한다

연말 템플스테이 숙소 보수해 용도 변경키로

1월 16일 교구종회서 밝혀
열악한 사암 재정지원 방안
장기적인 포교대책 논의도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24교구 교구종회 모습.

종단 최초로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가 노(老)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수행마을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1월 16일 지장보궁서 열린 24교구 교구종회에서 비구니스님 수행마을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오는 11월경 자연의 집 터에 건립 중인 템플스테이 수련관이 완공되면 현재 템플스테이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용도에 맞게 보수해 노비구니스님들을 위한 수행마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행마을에 별도의 식당을 마련해 평생을 가람수호와 전법에 진력한 노스님들이 수행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원공 스님과 성락 스님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2017년 주요 종무계획과 종무보고, 종무계획, 선운사 불사 및 사업계획 등의 예결산 안을 결의했다. 이외에도 승려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과 승려수행연금 지원에 관한 교구종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산촌에 위치하고 있어 가람수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사암들을 파악해 일정규모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불교신도 감소에 대비해 불교회관 건립, 불교대안학교의 설립 등 장기적인 포교정책 마련에 나서 교구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 강구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도솔암과 내소사, 내장사 등 3개 사찰에 대해 총 5억 원의 특별분담금을 부과, 교구의 목적사업에 활용하기로 의결했다. 종무행정 모범사찰에는 내소사(주지 진성), 포교우수사찰 임실 상이암(주지 성효), 불사우수사찰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선정됐다.

경우 스님은 “최근 불자 수 감소, 신도 조직력 약화 등 어려운 교계상황을 감안해 전 종도가 서로의 지혜와 자비를 나누며 불법홍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운사는 교구종회에 앞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성원당 운기대종사 35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1월 16일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에는 대우 스님을 비롯한 운기 스님 문도들과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은사스님의 35주기 추모재를 마련해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과 호남 불교중흥에 이바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난한 미얀마 아이들, 불제자로 거듭나

광주 성거사, 1월 6~11일
미얀마서 신뿌의식 지원



광주 성거사 지원 덕분에 신뿌의식을 치르게 된 아이가 삭발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출가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미얀마 아이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다.

광주 성거사(주지 혜공)가 운영하는 바라밀봉사단은 1월 6~11일 총 6일간 미얀마 양곤지역에 위치한 아유디가사원(원장 아리야오운타)을 방문, 신뿌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30여 명의 아이들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학용품 · 의약품을 전달했다. 또 연꽃등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라밀봉사단원들은 2012년부터 5년째 아유디가사원에 후원물품과 지원금을 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한화 10여만 원의 경비가 없어 신뿌의식을 미뤄온 30여 명의 아이들을 지원했다. 또 1대1 결연을 맺은 아이들을 직접 방문해 학비와 생활비를 전달하고 마을 아이들에게도 일상에 필요한 물품을 나눠줬다.

성거사 주지 혜공 스님은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유디가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신뿌의식을 지원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디가사원 아리야오운타 스님은 “많은 분들이 미얀마까지 찾아와주신 덕분에 수계식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도움 주신 바라밀봉사단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인연으로 불교의 미래가 더 빛나고 번창할 것을 믿는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의식을 끝낸 씬삐자(13) 군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를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행복하다. 부처님 제자로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뿌의식은 미성년 남자들이 단기간 승가에 출가하는 의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아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출가를 알린 후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는 것으로 시작한다. 최소 3일에서 길게는 몇 달간 절에서 출가생활을 한다. 마을전체가 준비하고 함께 축하하는 공동행사로 미얀마 아이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로 여겨지기도 한다. 불교국가인 미얀마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 반드시 출가를 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아원과 학교를 운영하는 아유디가사원은 현재 200명의 어린이 · 청소년 출가자와 인근에서 통학하는 100명의 학생 등 총 300여 명이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 출가자는 대부분 고아이며, 나머지는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절에서 맡아 키우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불사, 새해 맞아 자비의 쌀 전달

1월 18일 경암동주민센터에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신도들은 1월 18일 군산 경암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비의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이 자리서 종명 스님은 “설을 앞두고 명절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을 도울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십시일반 모은 불자들의 정성이 설 명절을 맞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불사는 지난 1984년 창건한 이래 10여 년 동안 방생법회를 축소하고, 연중 3~4차례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자비의 쌀, 생활필수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종 도 모 집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종단의 발전과 사찰의 불사를 도와주시며
함께 뜻을 같이 하실 종도 및 사찰을 모십니다
종정 : 혜인 법정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 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총 본 산 : 용선사(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2길 98-5)
● 입종문의 : ☎ 054)856-9555, 010-8571-0236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총무원장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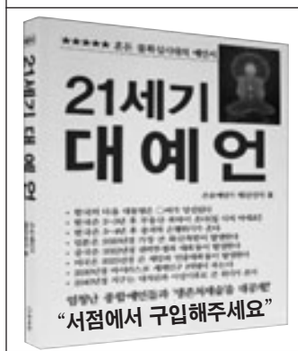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타로 카드 수강
1개월 배우면 상담 가능
(전화. 출장 지도)
전화로 모든 인생고민 상담
* 모든 상담자 확실한 효과
변비환 무료 증정
010-2748-632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법명 넣어 드립니다
규격 40cm×60cm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성명학'과 '도장'으로
월 300~500만원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연락 주세요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가능
• 수강료 : 직접면담후 결정
강의 : 덕인성명학 연구원 (원장 이상민)
010-4686-3588,
02-562-835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역 2호선 5번출구) 역삼하이츠 905호

노인 요양 복지시설 사업에 뜻이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파주시에 있는사찰내 부지 약 1000평 활용 가능함. 꼭 뜻이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718-4123

30년전 곡성 태안사에서 김천 청암사로 공부하러 떠나신 **정윤스님**을 찾고 싶습니다
정윤스님께서 광고를 보시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오연아 합장)
010-2349-9941
010-4604-4083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보살님 방사 드립니다
1인 단독 개인방사 드림,
25평형, 방2개, 거실,욕실, 주방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8556-00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김해)
010-3858-9210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동림사)
055-337-0001
010-3871-3000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포교원 인수 하실 분
–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 최초의 전문기도 치료사는 부처님이셨습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2017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9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8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는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도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1)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7년 3월 14일 ~ 9월 26일까지
②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7년 3월 14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 숫타니파타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아늑하고 아름다운 사찰 ◀
- 위치 : 청도(대구에서 20분거리)
- 총부지 : 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3동 50평) 목조삼성각(7평), 극락전, 황토방
- 가액 : 4억 (금융대출 : 2억 5천별도)

▶ 토굴 ◀
- 위치 : 경북 청도
- 총부지 : 280여평
- 건물 : 법당 및 산신각
- 가액 : 1억 4,500만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예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인법당. 요사채 94㎡, 토지 443㎡
- 마을 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1억1천만원(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신도시 포교원
◎ 부지 : 600평 ◎ 번화 중심가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 요사 : 12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협의 ◎ 양도가 : 1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 총부지 : 183평
- 건물 : 60평, 법당, 요사채(방 4개), 화장실2개
- 정원,주차장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몽땅 2억 2천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사찰(급)안내
- 충북 단양 암자 양도
- 토지 4400㎡. 건물면적 76㎡
- 주변산,민가없음,앞은 확 트임
- 포장도로 접, 조용한 암자나 토굴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에서 접수. 상담.안내가능합니다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경기도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지하철역10분거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내 상가
- 5층 297.5㎡(약 90평)
- 방3실, 법당, 주방 등
- 가액 : 4억3천만원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포교원]
● 대지 : 120평	● 대지 : 400평	● 위치 : 안양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	● 총평 : 65평
● 요사 : 30평	● 요사 : 25평	● 법당 : 25평
● 양도액 : 12억	● 가액 : 6억5천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성지 금정산 등산로접
- 토지: 600여평 점유, 해발300m
- 건물: 법당10여평, 창건80년
- 주지실, 요사채(건축물 대장)
- 기적같은 산신기도 암자
- 약수터, 주말 등산객 많음
- 가액 : 몽땅 2억 5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여항산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개)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찰(급)안내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 854평, 산신각, 요사채
- 방 14개, 경치 최고
- 사찰 겸 고시원, 건강원 최적지
- 가액 : 7억

010-6763-88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221-1번지
- 종교부지 680평, 법당 35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전세), 4억 5천(양도)

010-4876-1042 스님 직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2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6평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 3동, 32평1동 25평2동
- 특징: 철쭉꽃이 유명한 황매산 주령 아래 가든한 곳 건물 3동 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연못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합천읍 20분 영화테마파크 10분거리
-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건설중 대병IC 5㎞ 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명당자리
- 사찰 연수원 팬션 가든
- 가액 : 4억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055)933-4887

사찰 하실 분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부여 IC 5분거리
- 대지 200평
- 건평 77평(등기면적) (40평 별도 공간)
- 임야 155평 산속별장(다용도 사용가능)
- 가액 : 3억 7천

010-5398-25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도심권) 큰사찰
- 2,700평, 대웅전, 요사채 등
- 계약 후 잔금은 담보 대출 지불 가능
- 가액 : 60억. 자세한 내용은 상담후 답사 및 절충 가능 꼭 하실 분만 상담 가능 수고비는 무상보시

010-7735-5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010-3112-0480

(급)암자같은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시설특A급 몸만 오시면됨. 법당1 삼존불완비
- 스님방1 거실1 주방1 욕실1 창고1 원두막1 보일러실 별도
- 마당 넓고 조용한 한옥단독주택 약25평이며 주변 주차공간 많음
- 비구니스님 오시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 가액 : 보1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600만원. 보시고 결정

010-3550-0132

사 찰 안 내
- 위치 : 창녕 남지읍
- 평수: 220평중 문중땅 일부분 포함
- 시장 및 남지 IC 2~3분 거리
- 도로변에 위치, 교통 편리함, 건물 2채
- 역학인 및 무속인에 적합한 위치
- 가액: 9,50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식기류 일체)

010-8855-173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건물 21평, 완전 수리
- 대지 124평, 삼불 모셔져 있고 대산신 불상 보존 주변 인가 무
- 도로터내 진입, 건물 방범시설
- 전기 자연 생수 대지내 발굴
- 가액 : 7,500만원

010-8899-8899

사 찰 전 세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95-3
- 대지 184평, 법당전체 60평 사용함
- 사용가능 총 평수 약 500평
- 삼존불 약사여래불 목불 전체다임 주차장완비 황토옛날가옥 100년 넘음 몸만오시면 됨 전체 완벽하게 다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010-6674-1356
010-4496-606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중앙동 최고 요지
- 부근 : 시청 이마트 올해 입주예정, 대단위 아파트
- 5층 상가 건물 중 3층 40평
- 삼존불, 지장소불, 관음소불, 약사불,산신각, 칠성각, 2,4층도 사용가능
- 큰방1개, 공양간1, 화장실2개, 시설사급, 주변환경 제일식 미원 無
- 모든시설 집기완벽,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9337-77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교통 위치좋음
- 스님 건강상
- 가액 : 보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일체 500만원

010-8517-2357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3753-7844

사 찰 안 내
- 위치 : 창녕 남지읍
- 시장 및 남지 IC 2~3분 거리
- 도로변에 위치, 교통 편리함, 건물 2채
- 역학인 및 무속인에 적합한 위치
- 가액: 답사후 결정

010-8855-1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풍기읍
- 토지 : 총 59평, 건평45평 (2층법당 30평)
- 건물:법당건물 산신각 지장전
- 수세식화장실2개, 지대방3개 공양간1개,창고1개,넓은 친견실1개
- 난방:기름보일러 및 심야보일러
- 가액 :2,000만원 월20만원 시설비 없음
- 소백산 밑 풍기온천 5분거리

010-4466-040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 생극면
- 대지 513평, 법당 외 4동
- 계획관리 전망좋음
- 가액 : 1억 7천

010-6341-34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 3개
- 친견실, 공양간, 샤워화장실 2개 밖에 남녀화장실, 산신각, 용왕 연못 등 시설 일체 방문 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당신도 작명대가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필자는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감정해 본 결과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고난 사주에 꼭 필요한 오행과 문자를 넣어줌으로서 사주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측자, 파자의 법칙상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모두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혹은 흉명(凶名)인지도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대법원 선정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작명서 들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자부하는 법이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4,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탈 퇴 공 고

● 법 명 : 아미따 (현각) 李重善

위 본인은 세계승가회의 회원으로 함께 하였으나, 세계승가회 정관의 내용이 본인과 맞지 않아 이에 탈퇴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세계승가회 회장 법하

인도-중국 '불교 적통자' 자리 두고 신경전

中 "신장위구르 지역 불교순례길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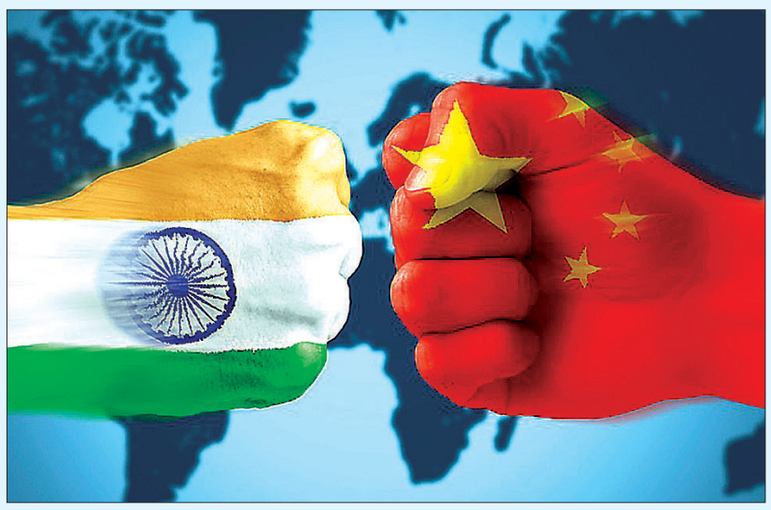
인도 정부가 2006년 날란다대학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불교를 활용한 문화외교에 적극 뛰어든 가운데, 막대한 재정으로 '불교 전통국'임을 홍보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도 영자지 'INDIAN EXPRESS'는 1월 15일(현지시간) "인도 문화부·고고학발굴단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불교 유적 순례길을 개발하면서 행로에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포함하자 중국 당국이 강하게 반발했다"며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 대다수는 무슬림으로, 중국 측은 불교 순례길에 해당 지역이 포함될 경우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거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문화교류위원회장 로케쉬 찬드라 박사는 "순례길은 불교가 전래된 길을 좇아 인도, 중국, 미얀마 등 여러 국가를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다. 현재 중국 측의 반발로 계획은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찬드라 박사는 "중국은 현재 보관중인 1,000개가 넘는 불교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해석해줄 인도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양국이 순례길 문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印·中 불교문화외교전 '팽팽'
인도불교순례길 신장성 포함되자
中 당국 "지역 무슬림 자극말라"
인도정부는 협상 의지 열어놔


최근 인도 당국이 개발하는 불교순례길에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포함되자 중국 정부가 "순례길 프로젝트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FXANDGEOPOLITIX

이에 대해 'INDIAN EXPRESS'는 중국 사정당국이 해당 지역 무슬림들의 동요를 우려해 순례길을 거부했지만 이는 표면상 이유일 뿐, 불교문화 전통국 자리를 둔 팽팽한 신경전이라 해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룸비니에 불교대학을 짓는 등 네팔과 꾸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세계불교포럼을 후원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불교 적통자'임을 홍보해 왔다.

나린다 쿠마르 싱하 인도 문화관광부 장관은 불교 전래지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단 사실을 인정했다.

"많은 불교 전래국들이 불교를 독점하고 자기들 고유의 문화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부처님 탄생지로서, 중국은 탄생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였단 이유로 적통자임을 주장합니다."

나린다 장관은 인도 주요 불교성지를 부정하는 중국 당국의 태도에 대해 "인도 불교문화의 원래 명성과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길 바란다"며 "바나라시부터 신장위구르 지역까지 이어지는 인도 불교 순례길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장위구르자치구는 동서 교통로의 요지로 파미르 고원을 넘기 전에 채비·거래하는 장소로 알려졌다. 당나라 고승 현장(玄) 스님은 카슈가르를 지나며 "농업이 성하고 직물업이 발달하였으며, 문자는 인도 문자를 모본(模本)으로 한다. 불교를 신봉하는데 승려는 1만여 명이고 사찰은 수백 개소에 달한다"고 기술해 인도 불교 문화가 융성했음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는 중국 신장성(省) 지역으로 1884년 카슈가르를 포함한 현 신장(新疆) 지역이 청의 직접지배에 편입되며 인도 정부의 지배권은 소멸됐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물 빠진 저수지서 600년 불상 '깜짝 등장'


중국 장시성 홍문저수지서 발견된 명나라 제작 추정 불상. 사진출처=ibtimes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월 15일(현지시간) 장시성 난청현에 위치한 홍문저수지서 벽에 조각된 불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 중인 수력발전 공사로 저수지 물이 빠지면서 3.8m 길이의 이 불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

중국은 불상이 명나라(1368~ 1644) 전후 제작된 것으로, 저수지 아래에 절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쉬창칭 장시성 유물연구소장은 CNN과 인터뷰서 "명나라 초기 혹은 그 전 시대인 원나라 때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 속에 오래 잠겨있었기 때문에 날씨와 산화 등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네바다주민 하나로 모은 '진리의 밥상'

레노불교센터, 자발적 지불제·봉사활동으로 카페 운영

불교설화 〈본생경〉 속 배고픈 사냥꾼을 위해 소신공양한 토끼 이야기가 미국의 한 카페 설립의 바탕이 됐다. 카페는 배고픈 지역주민들을 위해 식사공양 봉사를 펼치며 지역 내 명소가 됐다.

네바다주 공공라디오방송국 'KUNR'는 1월 12일(현지시간) 레노시 플루마스 거리에 위치한 '레노불교센터'가 운영하는 '달토끼 카페(Moon Rabbit Cafe)'를 방문, 수도승 겸 공동설립자 피셔 부부와 마을 주민들이 음식공양을 베풀며 화합하는 현장을 보도했다.

특히 "타인의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능기부를 하는 등 주민들의 이타심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공동대표 셸리·매튜 피셔 부부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고민하다 지난 2015년 1월 31일 달토끼 카페를 개시, 수익금 중 일부를 2달에 1번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쓰고 있다.

"배고픈 사냥꾼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토끼를 다룬 〈본생경〉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시행을 펼친 토끼와 이에 감동받은 인도신이 보름달에 토끼 모양을 새겼단 이야기를 해줬더니 매우 감동하더군요. 우리 카페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비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레노불교센터'가 운영하는 '달토끼 카페(Moon Rabbit Cafe)'는 지난 2015년 1월 31일부터 2달에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사진출처=KUNR

달토끼 카페는 자발적 지불제(pay-what-you-can)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사값 5달러(한화 약 5,800원) 혹은 그 이상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며, 초과된 금액은 가난한 주민들의 식사값으로 사용된다. 카페 측은 자발적 지불제 덕분에 "돈 없는 주민들을 한 번도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부부는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는 지역사회 단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주민들이 주방장·서버로 나서는 등 불교 이타적·공동체 지향적 가치 아래 주민들이 화합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카페서 총괄주방장을 맡고 있는 제이모다 씨는 레노 시내 지중해 음식점 '슈와르마게돈'의 주방장이지만 2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활동에 나선다.

모다 씨는 "달토끼 카페는 주방장 소임자를 자유롭게 모집해 지역주민들이 여러 주방장들의 음식 솜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곳서 봉사활동 하는 날은 서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처음에 주방 일에 익숙하지 않은 봉사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어느새 능숙히 일을 해낸다"고 설명했다.

카페 이용자 겸 봉사자 캐시 매스트란투오노 씨는 "카페 운영방식이나 설립목표를 듣고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에 망설임 없이 카페 일을 돕고 있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살면서 주어진 임무를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토끼 카페는 "참석자들이 꼭 불자일 필요는 없다. 오직 고픈 배와 이타심이 참석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음식 나눔은 2달에 한 번 레노불교센터 1층 로비서 진행되며, 매번 쿠바·인도·독일·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 다양한 지역 음식을 대접한다.

이승희 기자

'불교괴짜들' 문 닫고 새단장 사이트 개설

"불교의 틀 밖에서 명상 전파 할 것"



'불교괴짜들' 설립자 빈센트 호른(사진 왼쪽)과 에밀리 호른.

10년간 불교를 주제로 진행해 인기를 끈 팟캐스트 '불교괴짜들(Buddhist Geeks)'이 문을 닫고 새 단장한 사이트를 개설했다.

'불교괴짜들'의 설립자인 빈센트 호른과 에밀리 호른은 "지난해 12월 불교괴짜들 팟캐스트를 중단하고 사이트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밀리 호른은 "불교괴짜들은 마지막 에피소드를 진행한 후 폐쇄할 계획이다. 불교괴짜들의 자료들은 유튜브와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괴짜들'은 기술발전과 철학, 교육, 비즈니스, 정치 등 다양한 문화 현상과 불교가 서로 교차하는 측면에서 분야별 프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이다. 2006년에 설립돼 10년간 수백 건의 팟캐스트를 생산했으며, 1,0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 활동과 함께 안거수행(리트릿)과 연례 컨퍼런스도 개최해왔다.

빈센트와 에밀리는 '불교괴짜들'을 확장시켜 'meditate.io'라는 온라인 명상 플랫폼을 개설, 불교보다 명상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사이트에서는 '명상지도'를 마련해 사용자가 마음챙김명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느끼는 과정을 워크북에 기록해 점검받고, 인터넷망에서 명상 그룹에 속해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meditate.io'도 '불교괴짜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에밀리 호른은 "우리는 수년간 불교와 명상을 지도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불교의 틀 밖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싶었고, 이번 'meditate.io'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사)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금강계단 대합동 대설법전

(미얀마 삼사 아사리 주석사찰 친견 대설법전)

불조의 법맥을 전해 받은 수법제자로서 스승의 법통을 이어받아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받고 四種鉤印하여 지구촌 모든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계대화상과 3師7尊證阿闍梨께서 법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전수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법왕님과 법상자간에 因緣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얽혀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三師七尊證 阿闍梨 큰스님들을 찾아 뵙고 예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지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世界佛教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大法會 2016.10.5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일 정 : 2017년 丁酉年 3월 1일 출발 (6박 7일)

■ 대설법전 : 양곤 사사나 승가대학 대설법전,
미얀마 삼장법사 주석사찰 대설법전,
양곤 불교회장 주석사찰 대설법전,
짜익티오 성 파고다 대설법전

■ 참가자격
- 5회에 걸친 세계불교지도자 합도 금강계단 수계자 전원
- 수계 희망자 사부대중 누구나

■ 참가신청 (미리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2)737-5665. 010-3618-6061
봉행위원장 010-8930-1785 / 기획실장 010-4467-9600

관리본부장 : 성각 대종사 합장
존증아사리 : 혜정. 남륜. 인경. 혜담. 제성. 현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 봉행위원장 대종사 대공 법혜 합장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5〉 만트라 명상

호흡 · 염송 수련… 만트라 活性化 비법



순수한 의식의 파동 '만트라'

만트라(mantra)는 '마음을 위한 도구'라는 뜻이다. 특별히 만트라는 소리 내지 않은 소리, 즉 순수의식의 침묵 속에서 고동치는 무한한 파동을 근사치의 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이 내면의 파동은 극도로 미묘해서 귀로 듣기 어렵고 입으로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영성 계보에서 내려오는 만트라에는 차원 높고 정묘한 파동이 일며, 그 파동은 만트라 음절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다. 그런 만트라는 의식의 권능에 의지해 생기를 띤다. 우주의 순수한 의식의 권능이 만트라 안에 온전히 실려 있기 때문이다. 생기를 띤 만트라를 외우면 마음은 서서히 내면으로 향하고 만트라의 근원으로 회귀한다. 그것이 만트라 수련의 기본 원리다. 하지만 만트라가 작용하는 방법과 그 비밀은 대단히 오묘한 데가 있다. 내면의 만트라 수련을 이해하려면 먼저 만트라의 과학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인도의 탄트라 경전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바 수트라(Shiva Sutras)〉와 같은 탄트라 경전은 "만트라의 말은 껍질이나 외투에 불과하다"라고 전한다. 만트라의 참된 본질은 전산화된 키카드의 비밀번호 같은 것이 아니라 각 음절에 새겨진 정묘한 기운이다. 음절에 새겨진 기운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려면 키카드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처럼 먼저 이 기운을 활성화해야 한다.

만트라를 활성화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수련을 통한 방법이다. 만트라가 심신의 깊은 차원으로 스며들 때까지 의식을 한 점에 모으고 느낌을 생생히 떠올리며 만트라를 외운다. 다른 하나는 여러 탄트라 종파에서 따르는 방법으로 쉬우면서도 대단히 강력하다. 이는 스승이나 스승의 계보를 통해 권능을 불어넣은 만트라를 받는 것이다. 이는 만트라를 근원의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과 같다. 스승에게 전수받은 만트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만트라를 수행한 스승들의 노력과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만트라 전수가 직접적이면 직접적일수록 만트라에 담겨진 권능은 커진다. 전수는 옛날에 스승과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귓속에 대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글을 통해, 꿈이나 명상 속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일단 만트라를 전수받으면 당신은 만트라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셈이다.

만트라 수련에서 가장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만트라를 호흡과 결합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며 만트라를 생각한다.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만트라를 생각한다. '옴 나마 시바야(Om Namah Shivaya)'처럼 긴 만트라를 수련하는 경우라면 만트라와 호흡을 일치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만트라를 반복하는 속도를 호흡의 속도에 맞추는 방법이 있다. 대체로 처음에는 속으로 만트라를 빠르게 외우지만 명상이 깊어지고 호흡이 느려짐에 따라 만트라도 저절로 느려진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만트라를 호흡에 일치시키기 않고 만트라를 단순히 반복하는 방법이 있다.

만트라 수련, 핵심은 집중력

만트라는 음절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음해야 효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만트라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만트라가 힘을 발휘하는 때가 많았다. 다른 기법들도 그렇듯 만트라 수련에서도 부드럽고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은 한 점에 모으되 기법에 힘을 줘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팔에 내려앉은 새를 잡는 것처럼 섬세한 알아차림으로 만트라를 대한다.

만트라가 친밀해질수록 만트라의 차원이 차츰 깊어진다. 만트라에는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가장 간단한 차원의 만트라는 집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은 모두 배제하고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보다 깊은 차원의 만트라는 특정한 은총의 흐름, 스승이나 스승의 계보, 신성과 당신을 연결한다. 이 차원에서 만트라는 정묘한 기운을 인체에 보낸다. 그리고 인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정묘한 힘으로 기능한다. 가장 깊은 차원의 만트라는 순수한 광채요, 순수한 침묵이며, 순수한 사랑이다. 이는 〈시바 수트라〉에 따르면 만트라 안에 있는 라하시아(rahasya), 즉 비밀이다. 만트라는 지고한 각성의 빛이다. 북인도 요가 경전인 〈파라수라마 칼파 수트라(Parasurama Kalpa Sutra)〉에는 "만트라는 지고한 실재다"라고 전한다. 탄트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만트라를 특정한 신의 '소리 형상'으로 본다. 그래서 수행자는 신의 형상으로 내려온 정묘한 권능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만트라를 염송한다.

자연스런 호흡에 의식 집중하면
만트라 고차원 · 정묘한 파동 일어
들숨과 날숨 사이 정지된 순간서
개개인 큰 의식으로 바뀌는 경험

물론 앞에서 말한 것들이 처음에는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처음으로 만트라 수련을 시작하면 말만 가지고 수련하기 십상이고, 잡념에 빠져 만트라를 놓칠 때도 많을 것이다. 만트라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빨래를 생각하고, 어제 동생이 말한 것을 걱정하고, 시내에 차를 몰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고민한다. 자신이 잡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순간 당신은 애초의 생각을 계속 따라갈 수도 있고, 잡념에 빠진 자신을 질책하며 비하할 수도 있고, 마음을 추슬러 다시 만트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수련이란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공상에 빠지거나 잡념에 빠졌다고 자신에게 화를 내지 말고 만트라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만트라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음을 자석처럼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정신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을 파탄잘리는 〈요가 수트라〉에서 '다라나(dharana)'라고 했다. 문자 그대로 '집중'이라는 뜻이다.

현재를 호흡하라

만트라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 만트라 음과 리듬의 느낌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만트라를 순수각성과 순수 침묵으로 체험한다. 이것이 사마디(samadhi)의 경지-사랑과 권능,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각성에 몰입한 경지-다.

이제 산스크리트의 귀중한 만트라, 소함(So'ham)을 수련해보자. 이미 만트라를 수련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만트라로 수련해도 좋다.

소함이라는 음은 콧구멍으로 숨이 들고날 때 자연스럽게 나는 '수수라(susurra)'라는 소리와 비슷해서 '자연스러운 만트라' '호흡 만트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함은 '그것이 나(我)다'라는 뜻이다. '그것'은 실재의 중심에 있는 순수각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소함 만트라는 '참자아는 순수의식과 같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다. 이 만트라는 깨달은 존재들의 깨달음을 표현한다. 이 만트라를 호흡에 맞추면, 자신의 호흡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심오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만트라를 되뇌는 동안 의식이 깨어나 각성을 유지하면 수련은 생기를 띤다. 수련이 기계적인 습관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통찰이 드러난다. 카슈미르의 현자 소마난다(Somananda)는 만트라 염송에 관한 핵심 가르침을 주었다. 소마난다는 나와 만트라와 만트라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만트라를 염송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만트라가 곧 정체성인 것이다. 만트라는 당신의 참자아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곧바로 대답하는 것처럼 '만트라가, 빛이, 변화의 기운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즉시 명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요, 만트라와 생동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을 만트라라고 생각할 것인가' 답을 찾다보면 나는 누구이고 만트라는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카슈미르의 현자, 체마라자(Kshemaraja)는 그의 저서 〈인식의 가슴〉에서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비밀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궁극의 실재를 온전히 체험하는 길은 마디아(madhya)를 확장하는 것이다." 마디아는 두 움직임 사이에 있는 정지점을 가리키는 용어다. 진자를 양쪽으로 흔들면 진자가 한쪽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때 진자가 내려왔다가 반대쪽으로 가기 직전에 찰나의 멈춤이 있다. 이 찰나의 멈춤이 마디아요, 정지점이다. 도끼를 휘두르든 호흡을 하든 생각을 하든, 모든 움직임은 바로 이 정지점에서 나온다. 바로 이 정지점이 우주의 심장으로 열린 문이다. 이 문은 개개인의 작은 의식에서 벗어나 커다란 의식으로 들어서는 자리다.

마디아의 자리로 들어가기에 가장 쉬운 곳은 들숨과 날숨 사이, 날숨과 들숨 사이다.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섬세하고 이완된 주의력과 각성이다. 두 호흡 사이의 공간은 대단히 섬세하여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려면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정지의 공간이 느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라. 마디아로 열린 문은 은총을 통해 또는 스스로 열린다. 그냥 마디아와 함께 머무르려고 수련을 계속하다 보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게 좋다. 날숨이 끝나면 30초 동안, 혹은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숨을 밖에 둔다. 날숨이 끝나고 드디어 숨이 사라진 공간에서 안식한다. 그런 다음 그 공간에 '신'이나 '참자아' 혹은 '순수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날숨 끝에서 텅 빈 순간에 머무는 것은 참자아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온전히 현존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 거기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만이 현존한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靈山齋儀式集
영산재의식집
일승 행원 편저 | 국배판 | 446쪽 | 40,000원

영산재 각 의식마다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등을 그린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영산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설과, 위나라 조식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고기떼가 춤을 추자 그 소리를 모방해서 범패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이자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범패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관계로 한 구절을 익히려고 해도 그 소리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게다가 전승자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서 범패를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범패를 배우면서 소리를 잊지 않고 익히고 공부하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채보한 것들을 모아 다시 편집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범패를 배우는 이들이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련, 대령,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상단권공),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까지 의식 내용과 그에 따른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 전승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010-9726-0626 (저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32호 현대불교
2017년 1월 25일(12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1년

그 무엇을 하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맡겨서 모두 하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제가 여기 스님 앞에서 다 고백하는데요, 올해 37세 먹은 노총각입니다.

큰스님 그러세요?

질문자1(남) 예.

큰스님 그 색시들이 다 어디로 갔남? (대중 웃음)

질문자1(남)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마는 참, 남의 집 귀한 딸들에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큰스님 미리, 장가도 안 들고 미리요? (대중 웃음)

질문자1(남) 그것 때문에 참 죄의식도 많이 느끼고, 그게 또 어떻게 계기가 돼 가지고 스님 말씀도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자 여자 따로 보이고, 또 여자도 예쁜 여자하고 좀 안 예쁜 여자하고 차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 역시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성도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은 확실하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주변 사람들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잘못된 버릇을 빨리 좀 고치고 싶습니다.

큰스님 네. 참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더도 덜도 말고 당신 같은 사람만 꼭 얻어요. (대중 웃음) 왜냐하면 내 분수에 넘치게 올려다봐도 안 되고 내려다봐도 안 됩니다. 단, 당신에게 걸맞고 아리따운 마음씨를 가진, 그저 아주 예쁘지도 않고 아주 못생기지도 않고, 그냥 마음씨 알뜰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시도록 하세요. 이 마음공부라도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럼 뭐, 엊그저께 만났던 사람도 쑬쑬하지 않아요? (대중 웃음, 박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 모습으로 몇 알갱이나 살다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씨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극치적인 모든 일들의 이미지를 아주 말갛게 귀정을 짓고 가야, 요 다음 생에 또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 때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소통령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하하하….

질문자2(남) 질문 올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마음 법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생활이 즐거워졌고, 또 직장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로 당당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교를 접한 것은 한 15년 됐는데 그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스님 말씀처럼 수박 껍데기 핥는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법을 알고 나니 정말 수박을 쪼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체험 가운데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시작이지만 이 생에 뭔가를 꼭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확고하게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세속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돈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고 또 고민을 해 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삶에 있어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원과 욕심과 탐심이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서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탐심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를 믿는 네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그게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내면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도 하는데, 이 서원과 욕심이나 탐심을 불교하고 연관지어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돈이 없으면 참 궁하고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묘한 법이 있습니다. 돈을 꼭 써야 할 때는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 남한테 꾸러 가지 않고 돈을 쌓아 놓지 않고도 어느 거든지 내 것 아님이 없이, 내가 쓸 때가 되면 딱 나오게끔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 방법을 몰라서야 어찌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이거 바가지가 없어서 물을 풀 수가 없는데….' 이러면 벌써 주인은 알고 '어, 바가지가 있어야 내 심부름을 하겠구나!' 이러고 바가지를 덜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돈이 당장 없을 때, '돈이 없는데 이거 참, 어떡해야만 돈을 만들어서 쓰나. 어떻게 해야만 이걸 갚나.' 하고, 그냥 안절부절못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빼꼼히 들여다보다가 달아나가요. 저 집으로 내가 들어갔다가는 그냥 찢기고 온통 야단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사람의 마음도 몸도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한마음이 돼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주인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이 법당채를 지을 때 말입니다, 돈 한 푼 없었죠. 그랬는데 이런 집 한 채를 갖다가 그냥 덜컥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그러더니 사람들이 돈을 그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게 된 겁니다. 오래 끌지도 않고요. 만약에 내 사사로운 욕심을 내서 이거를 그냥 움켜쥐려고 했다면 이거 안됐습니다. 이거는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넉넉히 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돈 없다고 돈을 생기게 해 달라고 원을 한다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갖다 줄 거라는 거,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하고, 살게 하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심부름꾼에게 돈을 안 줘서 심부름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놈이 다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놈한테다가 딱 맡기고 콧방귀 콱 뀌라고요. 아, 무슨 걱정입니까? 예를 들어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으면 하인은 그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지, 돈이 없고 있고에 무슨 참견을 하느냐 이겁니다, 네? 살림할 게 없으면 주인이 어련히 줄까 봐. 아, 주인이 주면 하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는 진짜 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하인도 없고 진짜 그 가운데 그냥 자기가 자유스럽게 하는 거죠.

불을 지피는데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 마른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쏘시개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하죠. 그러니까 마른 나무와 젖은 나무에 똑같이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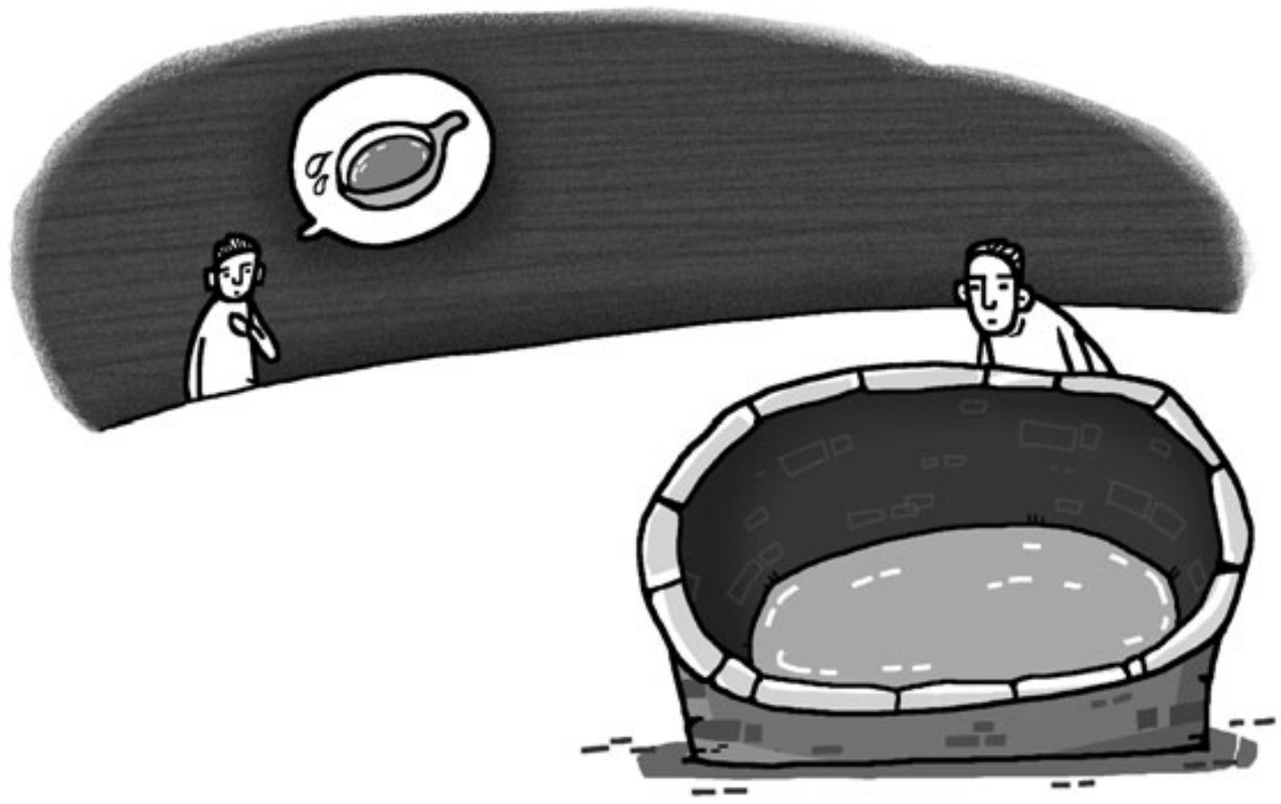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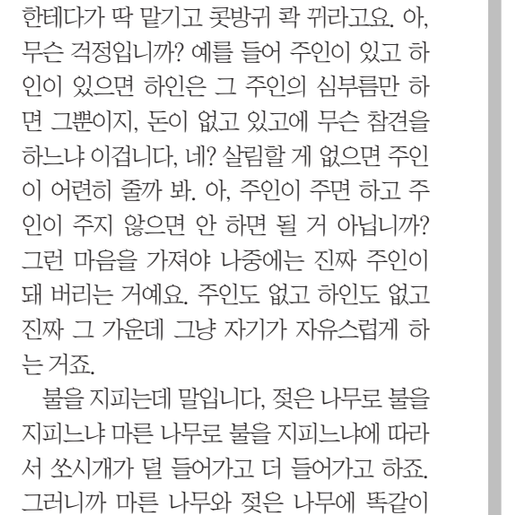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우리는 문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 A17면에서 계속

불쏘시개를 한다면 젖은 나무는 안 타요. 그렇죠? 마른 나무는 불쏘시개를 조금만 해도 타 버리는데 젖은 나무는 불쏘시개를 똑같이 갖다 놓고 하더라도 그 불쏘시개만 홀랑 타 버리고는 안 타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나무가 말라서 잘 타는 것과 같고, 수행이 돼 있지 않다면 아주 젖은 나무와 같아서 안 타죠. 그러니까 아직도 껍데기에, 즉 말하자면 타의에서 구하는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녹이려면 아예 진짜로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훨훨 탈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질문자3(남)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저는 56세가 됩니다. 신사생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살아온 것이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로부터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 기저귀에 싸여서부터 해남 대흥사(大興寺)에 다녔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서요. 내 나이 때만 하더라도 무녀독남이면 귀한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좀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저는 서울법대를 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네 번을 넘겨서,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죽다 살고, 옻칠한 상에서 밥을 먹다가 옻이 올라서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연달아 나서 네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하여튼 서울법대를 8명 들어왔으니까 좀 괜찮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기 입학할 때는 수석도 했고 그래서 자신 있어했는데, 내가 들어간다, 내가 시험을 친다고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도 했고, 또 사법시험을 본다고 하면 계속 사고가 나서, 열한 번을 쳤는데 1980년도에는 집안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가솔도 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인연이었는지 요가다 지압이다 경락이다 해 가지고, 산간벽지에 가서 고시공부를 하다 급체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을 돈도 안 받고 한 번만 만져 주면 다 나았는데, 막상 내 문제는 하나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에 뜻을 두었다가 20년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동창회 모임을 십 몇 년을 하다, 불사에 관련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돌산을 시작했는데 한 2년 전에 애당초의 방향과 틀려져서 그 돈을 가계수표다 카드다 해 가지고 지난 5월 31일에 몽땅 갚아 주었지만, 그것이 구르고 구르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해서, 지금 아주 높은 이자와 함께 현재 빚이 한 1억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그 일만 잘 풀리면 되기는 되는데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겠고, 지난 11월에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처럼 자식과 마누라하고도 헤어졌고, 집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조계종 절은 아닙니다만 보살이 운영하는 조그만 암자에 가서 그야말로 의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11월경 큰스님께서 간접적으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해 주셔서 그걸 읽고 마음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어려서부터 불법에 인연을 맺고 귀의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의 너무나 잘못된 입력들로 인해 또 지금 제 수행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쁜 결과가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은 안 돼도 대는 이어 달라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더라고요. 딸만 둘 내리 낳은 데다가 집사람이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숙원이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얻어서 아들은 겨우 하나 낳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얽혀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91년도에는 업보성이었는지 당뇨하고 폐결핵이 겹쳐서 세 번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고, 좀 좋아지는 과정에서 좋은 일이라고, 모두 불자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책임지고 했다가 실패했던 것을 업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매여서 휘말렸는데, 이제는 업보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다 잘되었다. 당신이 했으니 당신 책임이다.' 하고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아직 과거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큰 가르침 주십시오.

큰스님 우리가 말입니다, 산을 가로질러 끊더라도 거기 지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관리인하고 같이 한마음이 돼 주어야 아무 기탄이 없고, 하다못해 나무를 한 그루 자른다 하더라도 그 나무와 더불어 나하고 한마음이 돼야 그 나무 물체는 잘라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사 걸 자기가 한다고 그냥 모두 날쳤으니 뭐가 됩니까? 그리고 어머니 때부터 믿으신 것도, 믿어서 결정을 짓지 못할 거라면 애당초에 믿지나 말 것이지 그냥 이리저리 벌여 놓고, 여기 떠 놓고 빌고 저기 떠 놓고 빌고 해서, 오히려 마구니를 끌어들여 가지고선 해결을 못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우님들은 그 무엇을 하시더라도 오직 주인공에 맡겨서 모두 하게끔 하라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만약에 소를 잡지 않으면 안 돼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에 맡기고 잡았을 때는 살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의 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또 소의 근본은 바로 무명을 쳐서 나한테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된 거죠, 금방. 금방 내가 된 거죠. 그래서 한번 굴려서 재생이 돼서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한다면 그거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 수레에 한번 굴려서 내놓으면 그렇게 공덕이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모든 걸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어떠한 괴로움의 상처도 가실 수 있고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3(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모든 걸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 **어떠한 괴로움의 상처도 가실 수 있고**
> **어떠한 괴로움의 구덩이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마음 입장에서 보면 똑같겠지만요, 지금 저와 같은 무수한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쓰러지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그 쓰러질 가능성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 중간기업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내서 어떻게 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픔을 아니까 같이 아팠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큰스님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지를 돕는 데 어떻게 해야 제일 잘 돕겠느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라는 습성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자꾸 잘못돼 돌아가고 얻어먹기만 하게끔 만드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보태 주기만 한다면 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만 두는 겁니다. 가만 둬도 잘돼 갈 겁니다. '가만 둬도 잘돼 갈 겁니다' 하는 소리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그런 게 생기죠, 모두가.

질문자4(남) 큰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광주지원 청년회에서 왔습니다. 큰스님 법문 중에 문을 찾되 보이는 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 아닌 문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진리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진리를 찾아가는 방편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보이고 잡히는 걸로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듣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걸로써 자꾸 저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로써 그 문 아닌 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넘어질 때는 안 보이는 걸로 자꾸 넘어집니다.

큰스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 아닌 문을 찾되 문 아닌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찾는 것이며 그 문 아닌 문, 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비록 법문 중에 큰스님께서 백번 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새기는 심정으로 큰스님께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몸뚱이로서는 문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 들어갈 수가 있죠?

질문자4(남) 네.

큰스님 그런데 마음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마음이 나가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갔다 와 보세요. 어디로 나가야죠? 마음이 문을 찾아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난 여기서 저 건너 내 방이 있는 데를 그냥 벽도 봇장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지는데…. 저 건넌방 가는 것이나 지구 전체를 도는 사이가 같은 사이에요. 다른 우주나 태양에, 또 다른 혹성에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생각 딱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몸속에서 수없는 입자가 만약에 벽도 없고 봇장도 없이 그냥 나간다면, 문도 없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두고 '천백억화신이 나툰다' 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됐다는 것만 해도 아주 최상의 첨단이죠. 그래서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의식을 입자로 내보낼 때 그렇게 한계가 없죠. 그런데 무슨 문이 필요합니까? 문은 이 몸뚱이, 모습이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을 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 대포 뭐, 심지어는 로켓까지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또 그것보다 더 광대한 문제를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고 빛보다도 더 빠르고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거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문을 찾으며 배우려고 하지 말라. 문을 찾으며 공부하는 자는 학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찾는 거고,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건 문이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마음은 문을 찾지 않아도 아무 데고 문이 된다는 거, 은산철벽도 문이 된다는 거, 깊은 물도 문이 된다는 거, 허공도 문이 된다는 거, 그냥 어디고 문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그렇게 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이름했고 공덕이라고 이름을 했죠. 공덕! "일산(日傘)의 공덕은 크고 작음도 없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그 주인공이 문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이라야 되는 거지 딴 구멍은 없어요. 과거, 미래를 둘 아니게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사회자 질문이 없습니다.

큰스님 오늘 여러 법우님들하고 같이 도반으로 한자리에 앉았던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구,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집이 망가지거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생명이 살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그 지구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것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래도 거기다가 놓을 줄 아니까, 우주 천지에 직결이 돼 있으니까 다 알고 다 수습하겠구나. 괜찮겠구나. 부딪치지 않겠구나. 줄지 않겠구나. 팽창되지 않겠구나. 에너지가 없어서 못 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참 거룩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거는 모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쓰는 데서 연방 직결이 돼 있거든요. 연방 직결이 돼서 가설이 돼서 통신이 되거든요, 우주하고도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하지만 차차 공부를 더 하면 알게 돼요.

※위 법문은 1996년 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불자 세상보기 |

본질 망각한 인문학 진흥은 '毒'



성태용 교수
건국대 철학과

인문학은 운동장, 여러 학문은 선수
운동장 망가지면 선수는 뛸 수 없다
선수처럼 운동장에게 뛰라해도 안돼

인문학 필요성 · 활성화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학 정책은 인문학 축소 일로

'인문진흥법' 따른 교육부 계획 발표
법률 기반한 정책에 기대 · 우려 半半
"제 값해라"식 진흥책은 이제 사양

"수원지가 고갈되거나 오염되면 아무리 수도꼭지가 많아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 인문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즐겨 하는 말이다. 바로 실용적인 편의를 주는 학문이 수도꼭지에 해당한다면 인문학은 수원지에 해당한다. 중간에 배관 시설에 해당하는 학문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실용적인 편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인문학이요, 그렇기에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인문학이다.

다른 시각에서 말한다면 여러 학문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라면, 인문학은 운동장에 해당한다. 얼핏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운동장이 없거나 망가지면 아무리 선수가 많아도 뛸 수가 없다. 그런데 운동장에게 선수처럼 나와 뛰라고 요구하거나, 그렇게 못한다고 천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가 수도꼭지와 가까워서 좋은 것은 없다. 운동장이 선수처럼 뛰려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안될 말이다. 그렇게 실제적인 편의와 거리가 멀고 눈에 띄는 활동을 보기 힘들기에 우리 사회가 인문학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육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요즘 세태의 흐름을 보면서 인문학도로서 인문학의 위상에 대해 좀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여기저기서 인문학의 필요성을 외치고, 인문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정작 대학 정책 등을 보면 갈수록 인문학의 입지를 축소시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8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법률적인 바탕 위에서 인문학이 꽃피는 날이 오는구나"하는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왔다. 기초 인문학 활성계획과 생활 속에 인문정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 방침이 나왔다는 점에서, 법률을 바탕으로 한 걸음 크게 내딛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강화한다", "추진한다", "계획이다"와 같은 표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계획 또한 구체화를 거쳐야 하는 사전 단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이 발표에서 말한대로 이번 3월까지 수립하겠다는 2017년 시행계획이 나와 봐야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발표의 전체적인 내용은 2006년 경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인문학 부흥 운동과, 그 뒤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시행된 '인문한국(HK)' 사업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앞에서 이룬 바탕이 있기에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갖게 된다.

그런 기대 속에 한편으로 경계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인문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인문학이 우리 대중의 구미에 딱 맞는 쓸모를 가지고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이라면 사절하고 싶다. 말없이 기본을 놓는 진득함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마치 "망할 것을 살려 주는 것이니, 얼른 제 값을 해 봐라"하면서 인문학을 몰아간다면 이는 오히려 인문학을 정말 망하게 하는 짓이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당연히 사회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인문학적 소양이 개인의 삶에 풍요로운 근원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삶의 바탕에 깔아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하기에 모든 교육과정에 인문학의 비율을 늘린다는 것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그것이 억지춘향식의 늘림이 되지 않고, 인문학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바탕 위에 자연스럽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잘 살아보세"를 넘어 '인문 문화의 시대'로 나가는 역사의 흐름을 지금 여기서 일구어야 한다.

社說

조계종의 전법 강화 계획에 부쳐

조계종 교육원과 포교원의 올해 목표의 공통점은 '전법 강화'이다. 교육원은 전법 역량 있는 출가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포교원은 전방위 신행혁신운동을 펼친다.

2015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더욱 피부로 와닿는 목표들이다.

교육원의 경우 학인 스님들의 대중설법에 필요한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7월경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설법과 토론〉, 〈종무행정〉 등의 교과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2급에 이어 3급 승가고시에서도 '설법' 능력 평가를 도입하며, 모든 승가고시 논술에 '전법 · 포교'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신행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행혁신을 위한 사부대중 대중공사부터 거점사찰 확대 등이 추진된다. 신도 수행학교 시범 운영과 선원수좌회와의 수행프로그램 개발 등도 눈길을 끈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불교계 전법 능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인 스님들의 설법 능력을 배가를 위한 설법대회도, '붓다로 살자' 등 신행혁신운동 역시 모두 종단 차원의 전법 · 포교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분명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포교 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첨언하고 싶은 것은 무종교인과 타종교인에 대한 포교와 전법방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불교는 사찰과 사찰을 '수평 이동'하는 포교만 있어왔다.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부분은 무종교 · 타종교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어떻게 포교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10.27기념재단, 종교 특혜 아니다

제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10.27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10.27법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015년 국회 심의과정서 기획재정부 반대로 한 차례 제외된 사례가 있어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길 불교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대 국회서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10.27법난법 기념재단 설립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안 논의기간이 짧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0.27기념재단을 일종의 '종교 특혜'로 바라보는 정부부처의 편향된 시각에 불교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 아래 군 · 경 합동으로 전국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국가공권력 남용이자 한국불교 치욕의 사건이다. 이때 5700여 개의 사찰과 암자가 수색당하고 1900여 명이 연행되거나 고문을 당했다. 그럼에도 제주4.3사건이나 동학농민혁명 등 여타 과거사법률과는 달리 기념재단과 추모사업에 대한 항목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지속적인 추모 · 기념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10.27법난 기념사업을 담당할 기념재단을 종교 특혜로 봐선 안 된다. 이는 그릇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돕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제라도 10.27법난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과거사 치유의 당위성을 기획재정부가 적극 받아들여 올바른 역사 알리기에 나서길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새벽을 깨우는 닭 울음처럼

송마나 작가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도 벌써 보름이 흘렀다. 닭은 12지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한다. 작은 땅벌도 날개를 윙윙거리며 공중을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박쥐도 날개를 활짝 펼쳐 하늘을 나는데 멋진 날개를 지닌 닭은 날지 못한다. 생물은 물에서 뭍으로 그리고 날개를 얻어 하늘로 비상(飛翔)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닭은 날개가 퇴화하여 날지 못하고 다리만 튼튼해져서 땅을 종종거리며 머리를 숙여 먹이를 찾는다.

온갖 동물들이 등장하는 〈산해경(山海經)〉을 살펴봐도 봉황이 닭의 화려한 꼬리를 닮았을 뿐 닭은 언급되지 않는다. 백악기 후기에 몽골에서 살았던 길리미무스라는 공룡이 깃털은 없으나 닭을 닮았다고 한다. 아마도 닭이 공룡에게 제 목의 신축성을 자랑한 탓에 공룡이 그 장점을 취했나 보다. 이처럼 다른 동물들은 닭의 우수한 면을 제 몸에 접목시켜 더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닭은 오히려 퇴화하다니 딱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닭은 일 년에 100개에서 200개의 달걀을 낳고 고기는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져서 인간에게는 유익한 가축이다. 근래에는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치맥(치킨+맥주)'이란 신조어가 중국까지 전해졌을까.

닭은 설화에 등장한다. 신라의 탈해왕이 어느 날 밤에 금성의 시림(始林) 숲속에서 닭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나뭇가지에 걸린 금빛 궤 안의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 그 이름을 김알지(金閼智), 숲을 계림(鷄林)이라 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는 국호를 계림(鷄林)이라 하였다.

이뿐 아니라 고대의 영웅이나 나라의 시조는 아예 알 속에서 태어났다는 난생설이 활개를 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석탈해(昔脫解), 수로왕(首露王), 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 등을 꼽을 수 있으니, 알을 낳는 닭이 으스댈 만하다.

닭 머리 형상의 계룡산(鷄龍山)은 또 어떠한가. 계룡산에 정도령(鄭道令)이 나타나면 새 세상이 열린다는 예언에 내가 정도령이라고 떠들어 대는 이들이 한둘이던가.

아하, 내가 아니면 누가 새벽을 알리느냐고 발끈하는구나. 그래, 네가 울어야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밝아온다.

석가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는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다. 샛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계명성(啓明星)'이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심령에게 환하게 길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다.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그를 세 번이나 부인하다가 여명의 닭소리를 듣고서 통곡했다. 그는 '계명성(鷄鳴聲)'을 들은 것이다. '계명성(啓明星)'은 '계명성(鷄鳴聲)'과 다르지 않다. 닭소리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무명(無明)을 깨우는 '도계(道鷄)'의 소리이다. 닭소리는 자아(自我)라고 여겼던 마음이 빚은 환상의 껍질을 벗기고 내 안에 깃든 진여(眞如)를 깨우는 '불계(佛鷄)'의 설법이다.

정유년의 닭이 힘차게 홰쳐 운다. 우리 모두 이 닭소리에 잠든 본성을 깨워 새로운 불국토를 이루어 나가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핀 부평 용천사. 부처님 탄생이래 삼천년에 한번 피는 불사조 불사신 불광도량 달마조계종 부평 용천사 도량에 태양의 꽃 우담발화가 되어 성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와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혼이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어 만년만법을 다스릴 능력자 성인 도인 진인 선녀 신선들에게 태양의 무량자로 온 생명을 구하는 도량으로 하강하신 우담발화 병겁이 시작되는 2014년 가보세 가보세 사부작 사부작 병신 정유년에는 병든 닭 병든닭 무술년에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는 시대를 다스릴 초능력 도통군자 일류스승되는 대용맹정진 대법회

부처님께서도 루안통을 하지 않은 제자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하셨으며,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육통자재인 천안통으로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도통 하는 것이고 진광 빛을 보지 못하기에 업에 쌓여 선교, 불교, 유교, 도교에서도 찾는 천궁통 철야기도 대용맹정진 양력 2017년 2월 1일 ~ 2일 무박 2일 전국경향각지 종교를 초월 도통군자 저변확대는 물론 꺼져가는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울 인제 도인 선녀 지망생들에게 이소식을 전하며 그 누구도 주문이 없으므로 말법 병겁에는 도를 통한자만이 일체조상 빙의 잡신 귀신 천신 만신등을 천도 해원 시킬수 있으므로 천하대세를 아는 자는 단한번의 수행으로도 각종질병과 초상상문 이사주당 혼인주당 각종 귀신 잡신에 빙의된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의통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대 용맹 정진으로 진광 진법 빛의 신통조화능력을 얻어 신인도통, 해원상생, 수명연장, 부귀장수, 신선문화, 복지창달로 인류를 구할수 있는 강력한 초능력 얻는 무박 2일 천하대법에 입문하시어 그간 방황하던 종교수행에 신선도인, 성현, 선녀, 지상신선으로 해원신, 조화신, 보응신을 부리고, 단번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진광 진법으로 일류스승의 도를 통하여 볍겁에 전인류를 살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만사형통 모든 귀신 잡신 천신 만신을 부리는 천하제일의 도통군자 되는 법이고 현재 부리고 있는 각종 신들은 자기대에서만 부리고 자손으로 가지않는 해원 상생법으로 계론, 시론, 생천론으로 해원상생하는 법이니라.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7년 2월 1일(음력 1월 5일) 수요일 오후 9시
■ 해 제 일 : 2017년 2월 2일(음력 1월 6일) 목요일 오후 9시 무박 2일 해시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866 곽한영)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무박 2일
■ 상담전화 : 032)502-6625, 6629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번지 부평시장입구 천지공사 용천사

정유년 입춘 불공을 왜 하여야 하는가?

사람에 병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장수하고 방편도 하는 것이 입춘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으며 입춘일부터 사람을 괴롭히는 삼시구충과 각종 빙의신, 모태유산으로 탄생못한 혼들이 입춘일전부터 입춘날에 오장육부와 머리골, 뼈골까지 파고 들어가 각종질병을 발생 죽고사는 병을 만들어 괴롭히는 것이고, 특히 삼재나 삼충이들면 상시구충들이 잡신들을 총 동원하여 수마, 병마, 빙의신, 허주책쥐귀신들이 정신속에 숨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만들어 보증 싸움 이혼 투기 삼재 관재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용천사 태일대사**만이 과학이나 의학이나 한방 양방에서도 모르는 귀신병을 입춘날 본인의 양말에다 방편하여 악운의 삼재와 질병및 흉살 고통을 빛으로 제도하며 재수대통으로 수화 병마 인마까지도 해탈되어 건강 사업 진급 학업 취직 결혼 장수 성취한다.

● 입춘불공기도 : **2017년 2월 1일 ~ 2017년 2월 5일까지**
● 기 도 비 : 10만원〈삼재든 분은 1인당 33만원 양말과 함께 십원짜리동전 12개 꼭 준비함〉

현대의술도 잡지 못하는 삼시구충은 루진통만이 삼시구충을 제도한다.
삼시구충들은 동지부터 입춘까지 인간들의 오장과 육부와 육신에
파고 들어가 아프게 하며 각종 빙의신 허주신 등을 번식시킨다.

사람의 육신속에 각종병을 일으키는 삼시구충 병마귀신





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금강진법수육보영 | 천지공사 진광미륵달마 불선도 총본산 |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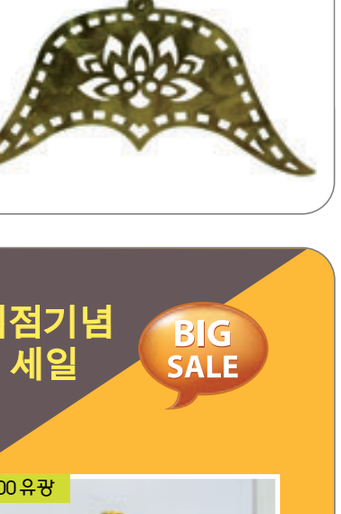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 (24.5㎝) 약 1시간 10분
단 (14㎝) 약 45분

(단)
(장)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 (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층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1년이 지났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다. 쭈뼛거리며 맞잡은 손이지만, 종교인으로서 사회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결연하다. 왼쪽부터 양한웅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도철 스님, 위원장 혜용 스님, 실천위원 혜문 · 법상 스님, 김한나 간사. 사진=노덕현 기자

사회적 약자는 힘껏 껴안을 共業衆生

〈공업중생〉

2015년 12월 노동위 확대 개편

실천위원 스님들 20명 꾸려져

고금 · 법상 · 혜문 스님 등 주축

사회 현장서 활동한지 1년 돼

실천위원 합류한 계기 제각각

'수행자로서 책무' 엔 이견 없어

"종교인으로서 사회참여 당연"

차퇴진 · 세월호 등 다방면 활동

道伴의 향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수행자가 무슨 사회참여냐' 는 핀잔을 듣는 일이 허다했다.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고함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약자를 보듬겠다는 가슴 속 서원은 더욱 굳건해졌고, 승복을 입고 흙바닥에 앉길 주저하지 않았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스님들의 이야기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단은 2015년 12월 노동위원회가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꾸려졌다. 양한웅 집행위원장과 김한나 간사 등 실무진을 주축으로 위원장 혜용 스님, 부위원장 도철 스님, 실천위원 고금 · 법상 · 혜문 · 혜찬 스님 등 20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광화문 광장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 해역에 나가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쳤다. 백남기 농민의 부검 반대 및 정부 사과를 촉구하며 조계사부터 서울대학병원까지 오체투지를 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초청해 월정사서 산사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수많은 사회 현장서 동분서주했던 지난 1년. 과연 무엇이 이 스님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을까.

"약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다"

스님들이 사회노동위 실천위원에 합류하게 된 이유는 제각각이다. 출가 전부터 사회 현안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이 있는가 하면, 출가 후 경전 공부를 하다 약자를 돌본 부처님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 혜문 스님은 전자의 경우다.

"청년시절부터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해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출가 후엔 산중에서 수행에 매진하느라 잠시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TV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여전히 밖에선 치열한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자각했습니다. 이대로 시대에 편승할 수 없단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실천위원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금 스님은 "선방에서 〈법화경〉을 공부하며 사회와 개인이 둘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또 대중에게 강의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이치가 아니다"며 "수행자가 시주 받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것도 대중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나 혼자 편히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초창기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승복을 입고 거리에서 목탁을 치고, 염불을 왼다는 것이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1년 전을 회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길거리에서 북과 목탁을 치라고 하니 스님들이 얼마나 쭈뼛거렸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행사 때마다 기자들이 코앞에서 사진을 찍으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스님들도 있었어요. 이제야 스님들이 조금씩 편안하게 활동하세요."

사람들의 시선도 달갑지만은 않았다. 물론 거리로 나선 스님들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스님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홀로 수행은 아무 의미 없다' 는 일념에서다. 몇몇 스님들은 이를 두고 '수행자로서 당연한 책무'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위원장 혜용 스님은 "스님들이 왜 사회문제에 관여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은 수행과 실천이 별개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 이라며 "종교인의 사회참여는 수행자의 의무와 다름없다. 고통 받는 당사자의 입장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들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혜문 스님은 "사회 · 정치 · 종교는 각각 독자적이고 폐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급한 때 스님들이 이를 방관한 적은 없었다"며 "진정한 종교는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고 민생이 풍요롭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중과 함께해야 수행도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스님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할 뿐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도철 스님은 "당연히 다양한 시각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 누구에게 환영받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의 사회참여는 비판받는다고 그만둘 일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엔 스님들이 약자의 편에 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스님들은 누구의 편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 다만 수행자로서 중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을 뿐이다.

스님들이 말하는 정원 스님 · 세월호

사회는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현장' 이다. 아름답기도, 치열하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실천위원 스님들이 뛰어든 사회는 갈등과 번민이 가득한 곳이다. 애초에 아름다운 어떤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 목도한 현실은 스님들을 참담하고 좌절케 했다.

특히 얼마 전 광화문 광장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소신공양한 정원 스님은 실천위원 스님들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 실천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도반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다. 혜문 스님은 정원 스님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몇 번 뵀습니다. 항상 시민들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런 정원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셨단 소식을 듣고, '내 자신이 그만큼 열심히 했나' 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수학 중인 고금 스님은 종종 학생들에게 정원 스님 관련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불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스님이 소신공양한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정원 스님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소신공양하신 것이 아니라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봐야 합니다. 정원 스님이 먼저 떠나신 것은 매우 슬프지만,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세월호' 도 빠질 수 없는 얘기다. 미수습자 9명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며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기도를 올렸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직접 참사해역으로 나갔다. 삼킬 듯 몰아치는 파도가 무서웠지만, 그곳에 잠겨있는 아이들을 차마 잊을 수 없었다.

법상 스님은 "처음 배 타고 나갔을 때는 사실 섬뜩했다. 바닷물이 새카맣고 파도가 거셌다. 하지만 어린애들이 아직도 거기 잠겨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흥분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B4 출판 고품격 양장 제본용 경전 선물세트

B5 문화 스테인드글라스와 불화의 '이색 만남'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 의 일본사찰 엿보기

그들 고통 외면 못해 거리로 나섰다



실천위원 고금 스님이 지난해 3월 30일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기도법회서 법고의식 중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부위원장 도철 스님이 시민의 손을 맞잡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촛불집회에 참여한 어린 아이에게 연등을 전달하는 실천위원 혜문 스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15년 12월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인권 · 빈곤 · 차별 등 다방면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확대 · 개편된 조직이다. 양한웅 집행위원장과 김한나 간사 등 실무진을 주축으로 위원장 혜용 스님, 부위원장 도철 스님, 실천위원 고금 · 법상 · 혜문 · 혜찬 스님 등 20명이 활동 중이다.

한편 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동위원회는 2012년 5월 사회 양극화로 첨예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위해 조직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B1면에서 계속

특히 폭염이 내린 2016년 여름,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서 올린 72시간 릴레이 기도는 힘들었던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잠 한 숨 자지 못했던 72시간 릴레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다. 고생 정말 많이 했다.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김한나 간사에게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끝내냐' 고 푸념하기도 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얼마 후, 세월호 선수들기가 진척이 됐다. 사회노동위 스님들 기도 원력이 대단한 것 같다(웃음).

김한나 간사=맞다. 세월호 기도회를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인양이 조금씩 진척됐다. 11월 말에 광화문서 기도회 봉행한 후에도 선미들기가 상당히 진척됐다. 조그맣게라도 진전이 있으니 힘들더라도 보람 있다.

함께였기에 가능… 앞으로 계획은?

만약 실천위원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스님들은 혼자서라도 광화문 광장에 서있었을까? 아니면 굴뚝같은 마음만 간직한 채 산중서 지켜보고 있었을까? 문득 궁금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달랐겠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였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단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모두가 '혼자보다 여럿이라 좋다' 고 말한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수행자가 무슨 사회참여' 핀잔도

"승복입고 선뜻 나서기 쉽지 않아 도반 스님들 함께하니 용기 내" 소속감 · 연대의식도 생겨나

실천위원 조직 후 역량 증대

2 · 3기 튼튼한 기반 갖추려면 사무실 확보, 상근제 확립해 전담기구로의 개편 과제 남아

법상 스님=혼자였다면 겸연쩍기도 하고, 사람들이 '혹시 저 스님이 혼자 잘났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도반 스님들과 함께하니 그런 부담이 적다. 승복을 입고 사회문제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커다란 결심이 필요하다.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르는 일이다.

혜문 스님=여러 스님들이 함께하면 확실히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실천위원 스님들 간 관계도 돈독해진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위원단의 인원을 늘릴 필요성도 느낀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실천위원 스님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활동을 시작한 후에도 스님들이 문자에 답장도 잘 하지 않고, 연락이 잘 안 돼 애로사항이 있었다(웃음). 하지만 지금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 실천위원단이 꾸려진 후 확실히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점차 스님들이 활동 역량을 갖추고, 제 역할을 찾아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

김한나 간사=스님들은 성직자로서 상징성이 있다. 1명보다 2명, 2명보다 5명, 5명보다 10명이 있을 때 파급력은 더욱 확장된다. 실천위원 스님들 스스로 연대의식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회노동위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크다. 뜻 맞는 도반들이 모였으니,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다. 특히 개편 전 노동위원회부터 홀로 고군분투해 온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사회노동위의 전담기구화를 큰 목표로 삼았다.

"사무실을 갖추고, 2~3명 스님들이 상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노동 · 인권 · 사회 현장에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고, 각 현안에 대한 실천위원 스님들의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혜용 스님도 사무실 확보의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했다. 혜용 스님은 "실천위원 스님들께서 순수하게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활동과 열악한 사정으로 사무실도 없는 형편"이라며 "1기 실천위원단을 시작으로 2기, 3기까지 건실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선 중앙 사무실 확보 및 지방 교구본사별 사회노동위 구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가단체와 연대 및 재가자들의 참여를 이끄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김한나 간사는 "지난 1년, 스님들의 참여는 돋보였지만 재가 및 포교 단체와 연계가 부족했다. 재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면 활동 반경이 더욱 컸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 현안에 대처함에 있어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및 조계종 종무원조합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고금 스님도 현장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수요시위에 참여했을 때 중 ·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며 "몇몇 스님들이 활동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스님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재가자들과 함께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천위원 스님들은 이제 막 기지개를 핀 것과 다름없다. 3년 임기 중 1년이 막 지났고, 가야할 길이 더욱 멀다. 이에 대해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이제야 씨앗 하나를 심었다' 고 말한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고되고 막막할지라도 어느 해 봄, 승복을 자리 삼아 앉았던 그 흙바닥에 기어코 민들레 한 송이를 피어내고 말거라 기대해본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연등전문기업 대광불교

지혜의 등 · 자비의 등 연등을 밝히세요!!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6-7270 | 031)766-7271

절 1배에 흘린 땀방울 火 씻어줘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② 火를 절로 다스린 도반



그림 · 김홍인

틱낫한 스님이 쓴 '화'라는 책이 독서 시장을 강타한 적이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랫동안 이름을 올리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참 많은 현대인들이 화에 시달리며 사는 구나!'는 생각을 했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그 화를 내려 놓아야할지 고심해 보았을 것이다. 나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책을 읽는 동안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책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108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 권의 좋은 책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종이거울 역할을 하지만 백문(百聞)이 불여일행(不如一行)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해도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108배를 해보면, 화를 가라앉히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명약이 없다고 확신하게 된다. 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무엇에 걸려 고통을 받았는지 저절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108배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며 내 몸을 낮추다 보면 마음이 정화된다. 그 정화가 나를 바로 보게 하고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게 하는 것이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나의 도반 '경란보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동안 곁에서 보아온 사람 중 꾸준히 108배를 해서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답게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다. 불교에 대해 문외한이며 오히려 기독교에 가까운 정서를 가졌던 운동권 교사 출신의 그녀가 108배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머리 뚜껑이 열릴 만큼 화가 치솟고 늘 마음 밭이 송곳처럼 날카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생활이 어렵고, 일에 지치고, 반항기에 접어든 큰아이의 사춘기까지 맞물려 도저히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화가 불쑥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절을 하면 화가 가라앉는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 말 한 마디가 천군만마가 되었다.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 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108배를 시작했다. 108배 수행의 최대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에 방석 하나만 있으면 되고, 방석이 없으면 무릎이 닿을 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담요를 도톰하게 접어서 깔고 하면 된다.

지금은 3000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녀지만 처음에는 108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절을 조금만 해도 허벅지가 아프고 호흡도 거칠어 헉헉거렸다. 안하던 절을 하려니 무릎에 피고름도 생겼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꾸준히 횟수를 늘이며 일정량의 절을 하다 보니 저절로 호흡이 편해지면서 숨이 차지 않고 다리도 아프지 않았다. 그렇게 매일 108배를 하면서 경전을 공부하고 정진하는 수행모임에 들어가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수행모임에서 천일기도 정진을 시작하자 하루 300배를 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미타불'을 부르며 간절히 염원했다.

"화가 나는 이 마음이 가라앉기를!"

절을 하자 수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나하나 참회가 되었다. 오래된 과거의 일들이 차례로 올라와 고통스러웠지만 눈물을 쏟고 참회하는 과정을 거치며 마음이 안정되고 화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무엇보다 헛된 생각이 줄어들었다. 절을 하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 늘 판단하고 비판하며 무언가 정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절을 하다 보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것이 그러한 끝없는 망상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을 하면 잘못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떠올리며 걱정했던 같아요. '아이고, 저 아이가 저렇게 게을러서 앞으로 제대로 먹고 살기나 하려나, 결혼해서 아이나 제대로 낳아 키울 수 있으려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 내가 힘이 없을 때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하나' 등등 수없는 망상을 피우다보니 망상이 실제인 양 착각하게 되어 아이에게 공격적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어리석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절을 하고 또 불법을 알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망상의 노예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릎 꿇고 머리 바닥대며 내 몸 낮추면 마음 정화돼"
나 바로 보게 하면서 주체할 수 없이 끓어 오른 火 잠재워
결국 절 통해 힘찬 에너지 솟구쳐 올라오는 귀중한 체험

그녀는 요즘 헛된 생각이 올라오면 얼른 알아차리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다. 망상을 부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타인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좋은 에너지를 보내니 상대방도 경계하는 마음을 허물고 편안해 하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일이 나로부터 비롯되고 문제의 해결은 자신을 바로 보는 것에 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리석게도 그렇게 마음이 피폐해지도록 자신의 상황을 모르고 지낸다. 무엇보다 황폐해진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108배로 해답을 찾은 그녀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추위를 많이 타고 산에 오를 때면 숨이 차서 헉헉거리던 현상이 말끔히 사라졌다. 좀처럼 아픈 일도 없고 아파도 쉬 지나간다. 망상을 내지 않으니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은 탓도 있으리라. 몸이 한없이 무거웠다가, 느닷없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땅 속으로 기어들어갈 것처럼 축 처지곤 했던 현상도 사라졌다. 힘차고 맑은 기운을 퍼 올리게 된 것이다.

절을 하면 그렇게 힘찬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것을 체험한 그녀는 큰일을 앞두게 되면 늘 절하는 횟수를 늘인다. 100일 기도에 들어가 하루에 1080배씩 하거나 일주일 혹은 21일을 정해 3000배를 하기도 한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다. 절을 하면서 잠도 많이 줄었다. 절을 하기 전에 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늘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더 자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가벼워지다 보니 맑은 새벽에 일어나 절을 하는 날이 많아진 것이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녀는 이제 절 수행에 관한한 베테랑에 속한다. 매일 108배는 물론, 1080배 백일기도와 21일 3000배 기도를 수없이 한 결과다. 그뿐만 아니다. 도반들과 함께 1700미터 고지에 있는 설악산 봉정암까지 삼보일배를 몇 차례나 했다. 백담사 입구에서 봉정암까지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면서 가려면 보통 17시간 정도 걸린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는 그야말로 용맹정진이다.

내 한 마음의 변화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했던가. 절을 하면서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동안 그녀의 주변도 환하게 밝아졌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남편은 어느덧 두 번째 배지를 단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녀가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절을 하던지, 부처님께서 그녀의 염원을 들어주지 않고는 못 배기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두 번째 치른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를 한 그녀의 남편이 한 번은 아내가 절하는 정진회에 와서 수줍게 말했다.

"저는 그저 집사람이 절하는 공덕에 빌붙어서 가고 있어요."

정치인의 아내이다 보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 사귀어야 하는데 그리 사교적인 편이 못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절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절을 하면서 얻은 공덕이다. 이기적이고 예민해서(물론 엄마의 편견이었지만) 많이 부딪쳤던 큰딸은 꾸준히 절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는 그녀를 보면서 엄마를 보는 눈이 차츰 달라졌다. 급기야 어느 날 엄마가 절을 하는 방에 들어와 "엄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그녀에게 절한 보람을 느끼게 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하며, 세상의 엄마들이 자식들에 대해 괜한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절을 시작할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엄마를 따라다니며 꾸벅꾸벅 108배를 하고, 어른들 틈에 끼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까르르 웃곤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티베트 노스님들과 스무날을 지내다 왔다. 한없이 겸손하고 신심 깊은 노스님들과 지내면서 그가 받은 감화가 어떠했을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겠다. 올해 대학에 들어가 는 아들은 2월에 다시 2주 정도 다람살라로 가 노스님들을 찾아뵙는다고 하니, 어려서부터 엄마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함께 성장한 그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삼보일배를 마치고 돌아와 얼굴이 환히 빛나던 그녀에게 왜 그렇게 힘든 삼보일배를 여러 차례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갈등이 너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면 배척하고 생각이 같으면 함께 하려는 울타리들을 자꾸 견고하게 쳐나갑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없어지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발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며 경험한 이 기쁨과 행복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화나는 마음이 다스려 지지요, 건강이 좋아 지지요, 편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요, 주변에 좋은 기운 만들어 지지요, 절은 일석다조입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108배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0여 년 동안 곁에서 그녀를 보면서 내가 배운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진지하고 맹렬하게 삶에 도전한 태도였다. 정성을 다해 지속한 그녀의 108배와 3000배는, 그렇게 삶은 쉬지 않고 맹렬히 도전했을 때 진정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아무리 변화를 열렬히 갈망한다 해도 어떻게 그 힘든 3000배를 하고 그 높은 봉정암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가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무슨 소리,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다. 그녀가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지금 바로 108배부터 시작해 보시라!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내면에 숨어있다)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고품격 양장 제본용 경전 선물세트



법구경, 숫타니파타, 화엄경 등으로 구성

정유년 새해는 밝았지만 아직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서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온통 밖으로만 치닫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으뜸은 진리의 말씀이 담긴 책 읽기가 안성마춤이다. 마침 연말연시에 불교전문출판사인 민족사서 눈에 띄는 신간이 출간됐다. 선물용 경전 세트가 바로 그 주인공. 그동안 민족사서 펴낸 경전 시리즈 중 가장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법구경〉과 〈숫타니파타〉, 〈화엄경〉을 멋스러운 본문 디자인과 품격 있는 한지 느낌의 표지를 양장 제본, 선물용으로 펴냈다. 이 세 권을 한 세트로 구성해 세트 판매도 한다.

이번에 민족사서 펴낸 선물용 경전 세트는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법구경, 숫타니파타, 화엄경 등으로 구성돼 있다. 늘 손에 지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인데도 글씨는 최대한 크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돼 불교경전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준다. 실용성도 있는데다 고급한 양장본으로 소장가치도 있어 선물을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 기쁨과 감동을 줄 만하다. 부처님의 생생한 음성이 담긴 법구경과 숫타니파타는 석지현 스님이, 대승 경전의 정수로 손꼽히는 화엄경은 화엄학의 대가인 김지견 박사님이 우리말로 알기 쉽고 읽기 쉽게 번역하였다.

나 자신을 위해,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법구경, 숫타니파타, 화엄경. 이 세 경전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운명을 관조해 보고, 답답하고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내보자. 이것이 나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나 자신을 비롯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경전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덕을 짓는 일이다. 수많은 경전에서 법보시가 최고의 공덕이라고 찬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뜻 깊은 날, 특별한 날, 선물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될 때 추천하기 좋은 책, 민족사에서 펴낸 선물용 경전세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경전 공부로 복잡하게 얽힌 마음 실타래 풀어보자

법구경

석지현 옮김 | 민족사 펴냄 | 9,500원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

〈법구경〉은 깨달음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구집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 사회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스스로 던져준다. 팔리어로 된 〈법구경〉의 원래 이름은 〈담마파다〉이다. '담마'는 진리, 불멸을 뜻하며, '파다'는 언어, 말, 길을 뜻한다. 그러므로 '담마파다'는 '진리의 언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전 26장 423편의 시구로 되어 있는 법구경은 초기경전(원시경전)의 묶음인 5니까야 가운데 제 5 소부경전(小部經典)의 제 2번째에 해당한다.

법구경은 인도서 성립됐지만 이미 인도를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종교와 아무런 관계없이도 법구경은 인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더 나아가 동양과 서양의 여러 나라로 퍼져 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의 정서와 융화되어 가슴의 언어가 되었고 영혼의 노래가 되었다. 법구경은 언어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아 있는 언어다.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민족사 펴냄 | 9,500원

불멸의 언어, 숫타니파타

〈숫타니파타〉는 〈담마파다〉와 쌍벽을 이루는 부처님의 시 모음집이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본다면 〈담마파다〉보다 〈숫타니파타〉쪽이 훨씬 앞선다. 〈숫타니파타〉의 편찬연대는 대략 A.D. 3세기경으로 추정한다. 가장 오래된 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는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의 경전으로 체계화되기 그 이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부처님의 육성이 담겨져 있다. 역자는 난해한 불교 전문용어나 철학적인 딱딱한 개념이 전혀 없는 대신 순박한 글귀들이 반복되는 〈숫타니파타〉를 통해 독자들은 맑고 청정한 새벽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숫타(sutta)'는 '말의 묶음(經)'을, 그리고 '니파타(Nipata)'는 '모음(集)'이란 뜻으로서 이 두 단어가 합해져 '말의 모음집(經集)'이 된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그의 제자들은 그의 말을 좀 더 외우기 쉽게 운문시(韻文詩)의 형식을 간추렸다. 이런 식으로 초기의 불교경전은 문자의 기록이 없이 구전(口傳)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갔다. 그러므로 구전 속에는 부처님의 음성 속에 담겨져 있던 영적(靈的)인 파장도 그대로 전해져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전에 의한 운문시 형식의 전승이 A.D. 3세기경 〈숫타니파타〉라는 이름으로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되었다. 〈숫타니파타〉의 시구들 가운데 비슷한 구절이 많고 반복 글귀가 잦은 것은 구전되어 오던 것이 그대로 문자화 됐기 때문이다.

저자인 석지현 스님은 최초로 우리나라에 인도 명상법을 소개한 장본인이다. 그 책이 바로 오쇼 라즈니쉬가 강의한 〈명상비법(Vigyana Bhairava Tantra)〉이다. 이 책은 명상에 관한 고전적인 책으로,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슬람 신비주의(수피) 명상도 모두 이 책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명상에 관한 책이 봇물처럼 나오게 되었다. 말하자면 석지현 저자는 라즈니쉬와 명상법을 동시에 알렸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저자는 직접 인도로 가서 명상수행과 요가수행을 하게 된다. 약 3년간 인도에 머물면서 인도의 구석구석을 방랑했다. 뿐만 아니라 네팔의 광활한 히말라야를 방랑했고, 부탄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예루살렘의 불타는 사막을 방랑했다. 구루의 본고장을 순례하는 구도의 방랑이었다. 그는 10여 년간 수많은 명상 수행가와 '구루(guru)' '사두(sadhu)' 수피(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들을 만났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인 트리창 린포체, 티베트불교의 스승 트롱파, 명상구루 크리슈나 무르티, 라즈니쉬, 힌두의 거장 묵다난다, 세계적인 요가의 1인자 아헨가, 힌두의 거장 쉬리이사가 다타마하라지 등등…. 현재 저자는 〈벽암록〉(전 5권)을 완역 · 간행한 이후 묵조선의 창시자 굉지 정각의 〈종용록〉을 번역하는 등 선(禪)에 몰두하고 있다.

화엄경

김지견 옮김 | 민족사 펴냄 | 1만 2천원

구도와 보살의 길, 화엄경

〈화엄경〉의 원제는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여기서의 대(大)란 소(小)에 대비되는 의미가 아니라 불법의 궁극까지 철견된 무한절대의 이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광이란 한정된 공간의 넓이나 방향이 아니라 연화장법계의 상즉상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법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화엄경은 시간과 공간의 한정이 완전히 초극된 깨달음의 경지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라져 버린 무법상, 무영상의 법계를 전개한다.

화엄의 범어 명칭은 간다뷔하이다. 간다는 잡화를, 비하는 엄식을 의미한다. 즉 이름 없는 꽃을 포함한 수많은 종류의 꽃으로 법계를 아름답게 장식한다는 것이다. 물론 꽃이란 중생인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작은 진실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이름 없는 한 송이 꽃에서도 무한한 우주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화엄경의 메시지이다. 이와 같이 장엄하고 화려한 구성을 바탕으로 불도의 근본이념과 수행체계를 웅대하게 전개하는 화엄경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즉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이루신 정각(正覺)을 근본 주제로 하여 '불도의 실천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일체 중생은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는 불도를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보살의 갖가지 수행을 설하고 있으며 마음과 우주의 연기적(緣起的) 구조,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行願), 선재동자(善財童子)의 53선지식 편력과 같은 대승불교의 근본 주제가 웅대한 체계로 전개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면?



모든 순간 껴안기

아남 툽텐 지음
임희근 옮김
담앤북스 펴냄
1만 4천원

아남 툽텐 린포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누비며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 수행법을 전한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찾아와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그의 설법(강연)은 쉽고 재미있기로 유명하다. 그는 언제나 쉬운 설명과 풍부한 사례로 우리 삶의 진리, 진실을 일깨워 준다.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자주 던진다. 그 질문은 때로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다. 사고의 전환, 삶의 변화를 불러오는 근본적 물음들이다. 이 책에도 여러 질문이 소개됐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삶이 재미있습니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진짜 행복, 즉 어떤 형태의 성공, 이득, 성취, 안전, 안락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행복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등등.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레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 돈이나 지위로는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 없음을, 세상에 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무아(無我)의 진리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는 무상(無常)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한마디로 "인생의 소중함과 덧없음을 동시에 자각"하는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은 불편함이나 불안, 두려움을 낳기도 한다. 저자는 이것을 정신적 깨어남이 발현하는 신호로 본다. 아울러 저자는 그러한 불편함, 두려움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쇼핑 등으로 회피하지 말고, 그러면 두려움, 미움, 욕심 같은 마음이 그다지 견고하거나 참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놓아 버림(내려놓음)'은 아남 툽텐이 설법 자리서 자주 언급하는 화두 중 하나이다. 그는 "참된 행복은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놓아 버리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릇된 믿음이란 이를테면 '나는 000한 사람이야' 같은 스스로에 대한 강박, 고정관념 같은 것입니다. 그는 확실함과 안전에 대한 욕망(집착)도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당초 세상은 취약하고 변화무쌍하고 덧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포함해 우리가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집착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실상입니다.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될 대로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앞날을 준비하되,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불확실한 것, 불안전한 것을 사랑하면 우리 삶이 한결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수월관음도 180x200cm 스테인드글라스.

스테인드글라스와 불화의 '이색 만남'

광주 무각사, 임종로 작가 스테인드글라스作 6점

한국 불교미술 사상 최초로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고려불화가 대중에 공개된다.

광주 무각사는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든 고려불화 등 6점을 선보이는 '중창불사 특별전'을 2월 15일까지 로터스갤러리서 진행한다. 작품들은 2014년 중창불사를 시작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완공될 지장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스테인드글라스'는 금속산화물을 녹여 붙이거나 표면에 안료를 구워 붙인 색판 유리조각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채색한 유리판이다. 7세기경 중동지방서 시작돼 11세기 서구에 전해졌고, 12세기 후 교회당 건축에서 본격 발달하기 시작했다.

무각사에 설치될 스테인드글라스는 수월관음도 · 지장보살도 · 지장시왕도 · 아미타팔대보살도 · 현대단청 · 만다라문양 등 고려불화로, 특히 수월관음도는 자연채광에 비쳤을 때 살아나는 생동감과 우아함이 더욱 매력적이다.

불교 미술사상 선구적 시도
동서양 · 과거현대 '이색'
수월관음도 등 고려불화

불교미술에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불교미술 사상 선구적 시도란 점에서 주목된다. 무각사 측은 "중창불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자연채광을 활용하면서도 불교적인 장엄미와 예술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스테인드글라스에 주목, 처음으로 스테인드글라스 불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된 6점은 모두 임종로 작가의 작품이다. 임종로 작가는 대학시절 스테인드글라스를 배우기 위해 르네상스 탄생지인 피렌체서 유학했다. 그는 16년 간 이탈리아 공방작가로 활동하며 스테인드글라스의 제작 기술을 익혔다.

임 작가는 이번 무각사 전시를 위해 2016년 초 작업에 착수, 약 10개월에 걸쳐 6점을 완성했다. 불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새 시도인 만큼 각별한 신경을 썼다. 임 작가는 "불교미술에 표현된 장신구들이 워낙 섬세하고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특히 현존하는 고려불화 160여점의 대부분이 외국에 있어 원본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최대한 전통을 재현하는 한편, (보살상의)골격에 변화를 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반 평면미술과 달리, 빛과 만났을 때 극한의 화려함을 내뿜는 스테인드글라스의 매력을 고려해 원래 형태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

또한 고려불화 스테인드글라스가 설치될 지장전이 반지하인 것도 작업 과정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임 작가는 "지장전 내부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공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자연광이 드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로 작가는 2001년 피사 로솔리 미술학교서 스테인드글라스 개인전, 2010년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성당 모자이크 전시 설치, 2013년 아우스틴 대성당 8개 창문 스테인드글라스 전시 설치 등 해왔다. 현재 이탈리아 미켈레멜리니 스튜디오 수석작가를 맡고 있으며, 미술공방 'Studio AuraArte'를 운영하고 있다. (062)383-0108 박아름 기자

판화로 만나는 세계의 닭

고판화박물관, 1월 22일~3월 31일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전령사' 특별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아시아 · 유럽 등 세계의 닭 관련 예술 작품을 한 자리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2일~3월 31일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전령사-세계의 닭 판화 특별전'을 진행한다. 2017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서는 닭 관련 한국의 세화, 목판화, 민화, 석판화를 비롯해 피카소와 샤갈의 석판화 작품, 헝가리의 석판화 등 70여점이 전시된다.

닭은 예로부터 귀신을 몰아내고 축귀와 액을 막는 수호초복의 기능이 있다고 전해져왔다. 이에 민간에서는 정월초하루 호랑이와 닭 그림으로 액을 물리치고, 새벽에 우는 닭 울음소리를 듣거나 상원일 풍속에 닭의 새벽울음이 10번이 넘으면 풍년이 든다고 했다. 특히 〈천수경〉에서 닭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다리보살의 화신으로 표현돼 불교에서도 희망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선학 관장은 전시회에 앞서 1월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서 "닭은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전령사다. 이러한 닭의 불굴의 정신으로 국가의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해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수탉 석판화. 피카소 作.

한편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닭 판화 체험 템플스테이'도 함께 진행된다. (033)761-7885 박아름 기자

분당 대광사, 이순자 작가 고려금니법화경展

50여점 전시… 미륵불 복장 봉안 예정

대한민국 불교문화사경부문 명인 혜화 이순자 작가의 고려금니법화경 전시회가 분당 대광사서 열린다.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서 이순자 작가는 순도 99.9% 금으로 작업한 금니법화경과 함께 변상도, 호법신상도 등 5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금니법화경은 이 작가가 1,000일 동안 간절한 염원을 담아 완성한 작품으로, 약 7만자의 100m에 달하는 작품이다. 대광사는 금니법화경을 전시 후 미륵보전 미륵불 복장에 봉안할 예정이다.

이순자 작가는 1월 14일 열린 개막전서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을 대광사 미륵부처님 복장에 봉안하게 돼 작가로서 영광"이라며 "모든 관람객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순자 작가는 한국예술문화명인(제16-20-01-29호)으로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오사카 총영사관 한국문화원 초대전,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및 상해 총영사관 한국문화원 초대전, 한국미술관 등 국내외 개인초대전을 20여회 연 바 있다. 동화사 황금금강경 및 대견사 황금법화경, 고왕암 황금아미타경 등도 점안했다. 박아름 기자

불일미술관, 무료대관 신진작가 모집공고

2017 하반기 전시 가능 작가 대상
무료대관 지원… 3월 10일까지 접수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전시 무료대관 혜택을 제공할 신진작가 공모를 실시한다.

모집대상은 평면 · 입체 · 복합 · 미디어 · 불교미술 등 개인 및 그룹으로, 2017년 하반기(5~12월) 내 전시 가능한 작가에 한한다. 선정대상자에게는 전시장 뿐 아니라 엽서 크기의 인쇄물 및 현수막, 홍보를 지원한다.

접수마감은 3월 10일까지로, 희망자는 미술전시 공모사이트 네오룩(www.neolook.com) 또는 아트허브(www.arthub.co.kr)서 △대관신청서 △전시계획서, 프로필 및 경력, 포트폴리오(자유형식, PDF파일) 등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gallerybulil@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불일미술관 측은 "지난해에 이어 신진작가들을 위한 전시무료대관을 기획했다. 개관 21주년을 맞은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지난해 신진작가 공모전을 통해 활발한 전시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일반미술은 물론 불교미술의 신진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일미술관은 1월 29일~2월 7일 제1관서 화림 작가의 1번째 개인전 '화림, 불교를 디자인하다展'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서 '화림'이란 불교 상품 브랜드도 함께 소개된다. 쿠션 · 베개 · 108방석 · 앞치마 · 염주 · 다표 등 종교 생활용품으로, 화림 작가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박아름 기자

謹賀新年

Universal Buddha Land (U.B.L.)

사)국제불교문화진흥협회

회 장 이종목
종 정 옥 담
총 무 반야시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 35길 32 | 전화 053)614-7644
H.P. 010-3133-1776, 010-3543-2710 Homepage : WWW.ubl.kr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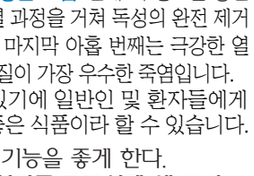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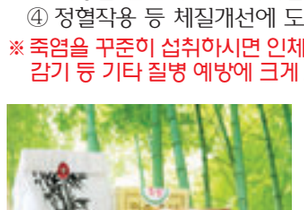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飛鳥寺서 한반도 도래인의 숨결 느끼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② 아스카데라(飛鳥寺)

내가 가끔 일본에 오는 한국인 친구들과 즐기는 것이 나라(奈良), 교토(京都) 등 간사이(關西) 지역을 함께 답사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나라 아스카에서의 답사가 최고라고 생각된다.

아스카는 오사카에서 전차를 타고 가도 멀지는 않지만, 차창 밖 풍경은 오사카와 완전히 다르다. 높은 빌딩도 없거니와 큰 아파트도 없어 그야말로 산과 논밭이 펼쳐진 시골 풍경이다. 순간 여기가 옛날 나라의 중심지였단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도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고분(古墳)이나 사찰을 통해 아스카가 원래 번영했고 깊은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된다.

일본의 본격적인 사찰로서 가장 오래된 아스카데라(飛鳥寺)의 현재 주소는 '아스카촌(明日香村) 아스카(飛鳥)'이며, 마을 이름이 한자로 '아스카(明日香)'이다. '비조(飛鳥)'는 나는 새라는 뜻인데 원래 일본식 한자 발음으로는 아스카라고 발음하지 않아 특별한 이름이다.

자료에 의하면 아스카를 비조(飛鳥)로 쓰는 이유가 옛날 어떤 시(詩)에 아스카에 대해 묘사한 것이 있는데 시의 시작이 '나는 새의 아스카…' 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는 새(飛鳥)를 아스카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마치 나는 새처럼 비행기 타고 한일 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지만, 비행기가 없었던 옛날에도 배를 타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도래인(渡來人)이다. 5세기 이후 아스카에서는 한반도를 기원으로 하는 토기나 건물, 온돌 등 도래인의 흔적이 많아졌다고 한다.

〈니혼쇼키(日本書紀)〉에 의하면 도래인 기술자들을 아스카 마을 시마노쇼(島庄, 현재 이시부타이고훈 주변) 부근에 정착시켰다고 한다. 도래인들은 건축, 야철(冶鐵), 방직, 토기, 문서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일본 문화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6세기에 들어 백제에서 불교도 전래했다. 지금은 일본에서 불상을 배례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숭불파(崇佛派)인 호족(豪族) 소가 씨(蘇我氏)와 배불파(排佛派) 호족인 모노노베 씨(物部氏)와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숭불파가 승리하면서 588년에 소가 씨의 발원(發願)으로 아스카데라의 조영(造營)이 시작되고 596년에 창건됐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 탄생한 것이다.

한반도 도래인 아스카에 정착
불교 건축·기와·온돌 등 전래해
아스카데라, 백제 도래인 참여
한국 부여와 분위기 비슷 '친근'

아스카데라의 본존은 일본 최고(最古)의 금동불상이고 중요문화재인 '아스카다이부쓰(飛鳥大佛, 석가여래좌상)'이다. 아스카다이부쓰에 대해서는 절의 안내서에 한국어 설명이 있어 인용한다.

"본존 아스카 불상은 605년 천황과 쇼토쿠타이시, 소가노 우마코 및 각 왕자들의 발원으로 609년에 구라쓰쿠리노도리(止利佛師)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높이는 약 3미터로, 당시 동 15톤과 황금 30킬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다.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85)와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85~1333)의 대화재로 전신이 불에 타 후에 보수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스카 조각미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세부적으로도 상당히 확실한 아스카의 특색이 전해지고 있다."



아스카데라의 본존불인 아스카다이부쓰.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는 백제 도래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대불 역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금동불상이다.



아마카시노오카(甘 丘)에서 바라본 아스카데라. 지금은 작은 사찰이 됐지만, 역사성은 매우 깊다.

대화재로 전신이 불에 탄 이후에 보수되었다고 하는데 근래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그때 보수됐던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한다. 최근의 대불 성분 분석 결과 대불 대부분이 아스카시대 그대로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기대된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창건 당시의 건물이 다 없어져 당시의 장대한 절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1956년에 사찰을 발굴 조사한 결과 당시는 오층탑을 중심으로 금당이 북쪽뿐만 아니라 오중탑 동쪽, 서쪽에 하나씩 있는 특이한 가람 배치였다고 알게 되었다. 이것을 '일탑삼금당형식(一塔三金堂形式)'이라고 부른다. 이 가람 배치는 고구려 청암리사지를 모델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왔지만 최근에 백제 왕흥사나 신라 분황사 등 사찰도 삼금당 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스카데라 조영(造營)을 시작한 당시 백제에서 스님과 절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자가 파견되어 왔다. 이 가운데 기와 박사도 있었다. 아스카데라를 조영하기 전엔 일본에 기와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여기저기에서 기와집이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백제의 와당문화가 전래한 덕분이다.

내가 아스카와 백제의 깊은 관계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아스카데라에 있는 작은 전시실이다.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연꽃무늬 수막새가 이것을 조용히 증명한다. 나는 부여에 가본 적이 있는데 왠지 외국이 아닌 나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부여에서 나는, 연꽃무늬를 비롯하여 도래인들이 일본에 준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또 부여에 가고 싶어졌다. 아스카데라를 지었을 때 만들어진 기와는 1,400년 지나간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헤이조쿄(平城京) 천도의 8년 후인 718년에 아스카데라도 헤이조쿄로 옮겨지고 현재 나라시내에 있는 간고지(元興寺)가 되었다. 당시 아스카데라의 기와도 옮겨지고 간고지의 본당(本堂)과 선실(禪室)에 일부 기와가 사용되었다. 빨간색 부분이 아스카시대 기와이다. 간고지는 도다이지(東大寺)나 고후쿠지(興福寺)에서 멀지 않아 가기 쉽다.

창건 당시 장대한 모습이었던 아스카데라는 9세기와 12세기 대화재로 가람도 소실되었다. 오랜 기간 폐사(廢寺)였던 아스카데라는 1632년과 1826년에 재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스카데라는 호코지(法興寺), 간고지(元興寺)라고도 불려졌는데, 지금은 안고인(安居院)이라고도 부른다. 안고인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찾아봤더니, 연구 자료에 의하면 17세기 절이 재건됐을 때 아스카데라에 은거했던 스님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은 작은 사찰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한국과 일본 간의 깊은 관계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찰이다. 많은 한국 분이 아스카데라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글·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

아스카데라 주변 볼거리

▲아마카시노오카(甘 丘)

아스카데라 서쪽에 아마카시노오카라고 부르는 높이 148m인 언덕이 있다. 아마카시노오카 일대는 아스카데라를 발원한 소가 씨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백제계 도래인 출신이라는 설도 있는 소가 씨는 언덕이 요새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아마카시노오카를 부여 부소산처럼 생각했었다고 한다. 아마카시노오카에 올라가면 유명한 야마토산잔(大和三山)인 우네비야마(畝傍山), 미미나시야마(耳成山), 가구야마(香具山)가 잘 보이고 아스카데라도 볼 수 있다.

▲아스카시료칸(飛鳥資料館)

아스카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스카시료칸에 가는 게 좋다. 아스카는 원래 아스카데라 뿐만 아니라 사찰이 많았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유적지가 된 곳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료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적지에서 발굴된 이런 유물을 통해서 아스카 역사를 엿볼 수 있고, 또한 한반도와의 깊은 관계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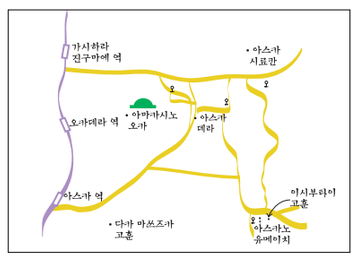
▲이시부타이고훈(石舞台古墳)

아스카데라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이시부타이고훈에 도착한다. 이시부타이고훈은 일본 최대급 석실을 갖고 있는 사각형의 무덤(方墳)으로, 7세기 초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된다. 원래 봉분에 덮여 있었지만 흙이 없어지고 거대한 석실이 드러난 상태이다. 노출된 돌무게는 무려 2300t이라고 한다. 누구의 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정권을 쥐었던 아스카데라를 발원한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의 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아스카 답사 어떻게?

아스카는 볼거리가 많은데다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자전거 타고 답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는 길이 좁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길 찾기도 쉽지 않아 평소에 자전거를 자주 타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전거 답사 말고 걷는 것을 추천한다. 가시하라진구마에역(原神宮前驛) 동쪽 출구 쪽에 아스카에 갈 버스 정류장이 있다. 1시간에 1번 정도. 계절마다 다르다.



가시하라진구마에역 → (버스 약 10분) → 아마카시노오카 정류장 → (걷기 약 10분) →아마카시노오카 꼭대기 → (걷기 약15분) → 아스카데라 → (걷기 약 15분) → 아스카시료칸→ (걷기 약 40분) → 이시부타이고훈 → (버스 약30분) → 가시하라진구마에역

관람과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5-6시간 정도 걸린다. 아스카는 볼거리가 정말 많아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른 유적지에 가는 것도 좋다. 식당이나 매점은 별로 없지만 이시부타이고훈 주변에 몇 개 모여 있다. 나는 이시부타이고훈 가까이에 있는 아스카노유메이치(明日香の夢市)를 좋아한다. 여기서 아스카 농산품이나 잼, 과자를 사는 것이 아스카 답사 즐거움의 하나다.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조건없이 믿어주는 것이…

제한없이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최고의 방법

조건없이 믿어주는 것이 상대방을 변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

판단없이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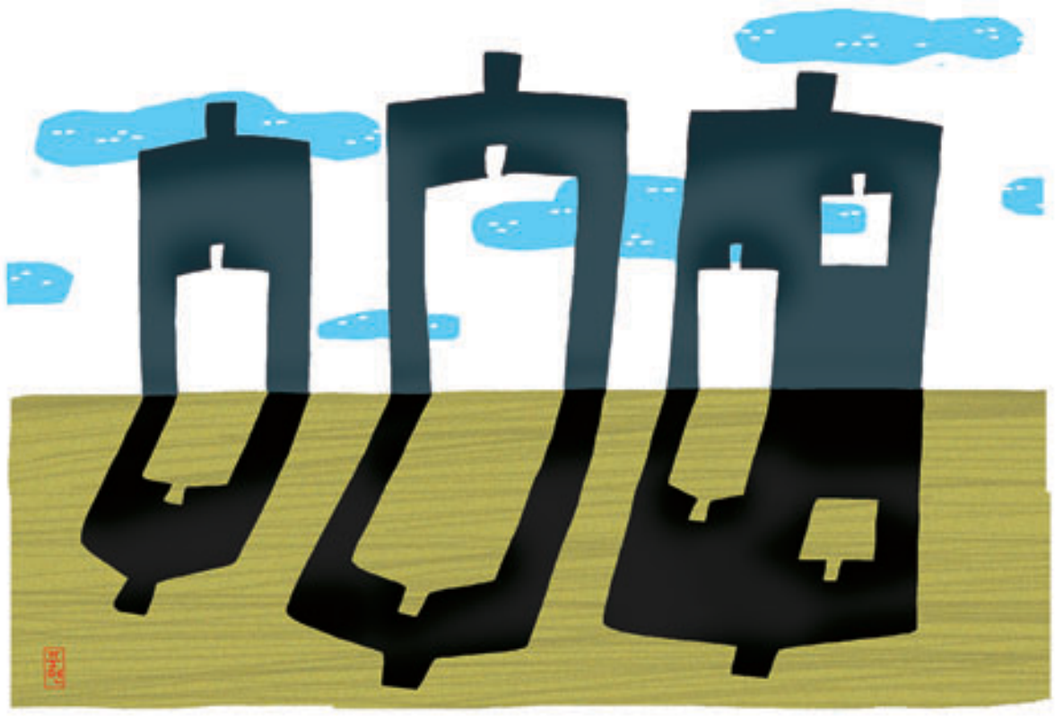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말과 행동이 '나'란 그릇을 만든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친구들 중에 내가 가장 불행해' 등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거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중 2병'은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신조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역시 중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가시 박힌 말을 함부로 내뱉고, 괜한 신경질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본능이 '주변 사람에 대한 경계'라는 까칠한 행동으로 표출된 거죠.

얼마 전, 짐정리를 하다가 옛 일기장을 찾아냈어요. 어느 봄날,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화를 이기지 못한 나는 시골길을 무작정 내달렸어요. 기진맥진하도록 달렸죠. 예민하고 자의식이 강했던 만큼 스스로에 대한 책망과 분노를 달리기로 해소한 거죠. 이렇게 현실의 압박과 불만의 화살을 자신에게 겨누어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주변에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괜한 성질을 부리고, 친구에게 욕설이나 폭력으로 표출하기도 하죠.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지만, 피해를 입는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라훌라의 세숫대야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가 어린 나이에 출가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리다보니 응석도 부리고 장난도 곧잘 쳤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심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계율을 어기며 수행자들을 골탕 먹이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라훌라야,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도록 해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라훌라는 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 드렸습니다. 인도에서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행위로 존경을 표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발을 다 씻은 후 부처님과 라훌라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라훌라야, 이 세숫대야의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습니다."

"왜 그 물을 마실 수 없느냐?"

"원래는 깨끗한 물이어서 마실 수 있었지만 발을 씻은 후 더러워져 마실 수 없습니다."

라훌라의 이 대답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훌라야, 너도 이 물과 같다. 수행에 힘쓰지 않고 마음도 깨끗하게 갖지 않으며, 계율도 잘 지키지 않았다. 또 욕심을 내고 성질을 부리며 어리석은 행동이 몸에 배어 있으니 마치 이 물과 같이 더렵혀졌다."

부처님은 물을 땅에 쏟아낸 후 다시 라훌라와 얘기를 나눕니다.

"너는 이 대야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대야가 깨끗하지 않아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습니다."

"출가를 했지만,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러워져 음식을 담을 수 없는 이 세숫대야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라훌라교계경》중에서

'나'라는 그릇 만들기

더러운 물이 담겼던 그릇에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육체가 그릇이라면, 자신이 평소 뱉는 말과 행한 행동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라훌라는 크게 뉘우치고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바르게 정진했는데, 훗날 '밀행제일'로 불리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지요.

사람은 佛性 담긴 귀한 법기
나쁜 말 · 행동, 그릇 더럽혀
사춘기 불완전한 정체성 딛고
꾸준히 十善 정진하면 해탈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는 바르고 고운 말을 쓰다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얘기를 할 때는 욕설 등 비속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친구는 없나요? 또 장난이란 이름으로 친구를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한 경험은 없나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춘기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기(法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행을 해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곧잘 그릇에 비유되는데, 그릇된 말과 행동은 '나'라는 그릇을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따라 '나'란 그릇은 반짝반짝 윤기가 나기도 하고, 더러운 오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이 그릇에서 향기가 나기도 하고, 역겨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되새기면서 스스로 아름다운 법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기에 무엇을 담을지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멋진 그릇이라고 상상하면서 이 그릇을 채울 단어들을 메모해봅시다. 예를 들어 자비, 친절, 친구와 열공(열심히 공부), 부모님께 효도, 동생 잘 돌보기 등을 적습니다.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자신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할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할지 구체화해 봅시다.

十善, 나를 맑게 하는 지혜의 길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엮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사람의 평소 품행은 그 사람을 규정짓게 합니다. 그럼, 평소 바른 품행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과 행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머릿속 생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십선(十善)의 점검을 권합니다.

십선은 ①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不殺生) ②내 것이 아닌 것을 훔치지 않는 불투도(不偸盜) ③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 불사음(不邪淫) ④거짓말이나 허튼 말을 하지 않는 불망어(不妄語) ⑤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불악구(不惡口) ⑥이간질 하지 않는 불양설(不兩舌) ⑦진실 없는 꾸민 말을 하지 않는 불기어(不綺語) ⑧어리석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불탐욕(不貪欲) ⑨성내지 않는 불진에(不瞋恚) ⑩그릇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불사견(不邪見)입니다. 이 열 가지는 심신을 맑게 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이 중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네 가지는 입으로 짓는 그릇된 행위로 평소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화를 저지르고 삽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 '人'은 바르고 참되다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왼쪽 획이 '바르다', 오른쪽 획이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제 2탄생기라고 할 만큼 사람의 됨됨이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바르고 참된 그릇, 세상에 꼭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갑시다.



위드클래스

영.수.국.과.사 중등 전과목 e-학습

너도 이제 중학생!
더 이상 엄마가 가르쳐주기에는
좀 벅차네요~
이제부터 위드클래스로...

www.withclass.co.kr

인터넷강의 + e-교재 + 문제풀이

오답클리닉 + 유형학습 + 전국모의고사

네이버 위드클래스

지사및 교육설계사 모집 상담문의 : 010-6701-7709

연락주시면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 ID와 PW를 드립니다. 010-6223-3000